

麗末 節義派의 研究*

文暲鉉 · 韓明洙 · 金光淳

《目 次》	
I. 序 言	3. 恭讓王 擁立의 쿠데타
II. 高麗의 篡奪	4. 高麗의 篡奪과 鄭夢周의 丹忠
1. 威化島 回軍 쿠데타	III. 節義派
2. 田制改革과 李將軍派의 승리	IV. 結 言

I. 序 言

고려 말에 性理學이 導入되어 土着化되면서 形成된 性理學派는 大義明分과 義理를 重視하는 士風이 크게 振作되었다. 이들 新進 士大夫 계급에 의하여 그들의 指導理念과 그들의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道로 채택된 新儒學은 麗末 國學의 再建과 함께 一世를 風靡했다. 이들 一群의 性理學派는 斥佛崇儒운동에 氣餒을 吐했다. 性理學이란 濂洛關閩의 學을 말하는 것으로 宋代에 流行하던 禪宗의 影響을 받아 訓詁 爲主이던 漢唐 儒學風을 一新하여 宇宙의 本質과 人性을 探究하는 窮理盡性의 思辨的인 哲學과, 宋代 遼와 金 元과 같은 强阜한 塞外 胡虜族의 支配와 壓迫을 받게 됨에 強力한 民族意識에 바탕하고 春秋에 立脚한 尊王攘夷 大義名分을 高潮하는 歐陽修 司馬光의 史學을 朱子에 의하여 이들 宋儒 兩者를 集大成한 것이다.

이 宋學이 고려 말에 들어오자 大義名分 尊王攘夷의 春秋精神은 麗末 儒學者에 의하여 크게 환영되었다. 오랜 北虜 元의 支配에 실증인난 고려의 신진 士大夫 계급들은 自主 主體 정신과 운동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自主 운동은 恭愍王의 改革 政治에서 高潮에 달했다.

이들 新進 士大夫 계급의 性理學者들은 이제까지 高麗 王朝의 지도 이념이었으며서 가진 病幣를 낳은 佛敎를 배척하고 衰微한 고려 王朝를 復興하려는 經世學에 몰두했다. 그리하여 많은 병폐를 개혁하는 中興의 維新政治를 단행했다. 오랜 병폐는一朝에 革舊改新기 어려웠다. 老衰期에 접어든 封建王朝의 土地制度는 극도로 문란해지고 連年의 倭寇로 인하여 全國土는 황폐해졌다. 극도로 진행된 土地兼併으로 인하여 百姓의 生活은 塗炭이었다. 거기다 少數의 貴族들은 나약하고 암우한 국왕을 에워싸고 虐政

* 이 논문집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에 過激한 一群의 性理學者들은 國難 匡救의 濟世 英雄 李成桂將軍을 옹립하여 革命運動에 투신하여 드디어 朝鮮 王朝를 開創하여 開國功臣의 班列에 策動되는 革命派와 大義明分에 殺身成仁하여 庶政刷新으로 기우는 高麗의 國運을 扶持할려는 一群의 性理學派로 二大別되었다. 前者를 革命派 後者를 節義派라 부른다. 本稿는 亡하는 고려 王朝와 國王에 忠節을 다 바쳐 節義를 지킨 節義派를 연구하여 그들의 學派 形成의 史的 背景과 그들의 經綸 및 政治思想을 考察하는 것이며, 이들의 선비 精神이 如何히 後世에 影響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本稿는 李成桂一派에 의한 고려 篡奪革命의 過程에서 고려를 扶持할려는 고려의 忠節세력 즉 王黨派와 李成桂를 頂點으로 한 朝鮮 革命세력과의 투쟁 過程을 고찰하며 李成桂세력의 革命 遂行의 過程을 검토하고 革命派에 의한 高麗 支持 세력의 肅清 過程을 살펴, 兩대세력을 分析 검토코자 한다.

本稿 主題名인 節義派란 廣義로는 高麗의 찬탈 革命 過程에서 고려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鬪爭한 王黨派를 포함하며 狹義(狹義)로는 節義派란 고려가 亡하고 난후 朝鮮에 協力치 않고 忠節을 지킨 고려의 忠節 遺臣을 의미한다. 本稿에서는 廣義 狹義의 節義派를 포괄한다. 한 王朝에서 祿을 먹고 그 王朝를 위하여 盡忠報國하고 不事二君의 忠節을 지킨 節義派의 忠君愛國의 정신은 이후 革命된 朝鮮 王朝의 綱常을 維持시키는 原動力이 되었다. 그리고 끊임없는 外勢의 침략과 內的 矛盾의 발로 난 內憂外患에서 王朝와 民族을 지켜온 정신적 支柱였다. 護國保民의 理念的 核心이 되어 왔다. 그리고 한국 文化를 전진시키고 지켜온 선비정신의 根幹이었다. 이와 같은 思想의 主役들을 再照明코저 하는것이 本稿를 開陳하는 目的이 될 것이다.

II. 高麗의 篡奪

1. 威化島 回軍 쿠데타

親明派와 親元派로 갈라져 싸우던 고려는 明太祖의 고려 배척의 태도와 高麗 使臣 入國 拒絶과 斷交 措置, 거기다 鐵嶺 以北은 원래 元의 땅이었으니 明이 차지 한다고 선언하여 明은 鐵嶺衛設置를 通告해왔다.¹⁾ 그리고 明은 고려에 대하여 不當하고 過重한 朝貢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風雲 急迫한 南倭 北明의 侵寇로 國家 非常之秋를 당하자 國難 打開의 決意를 굳게한 救國의 英雄 崔瑩은 無能 腐敗한 執權者 李仁任 林堅味 廉興邦을 打倒하여 救國政權을 수립했다. 崔瑩은 累代의 高麗 宰樞를 輩出한

1) 이곳은 高麗의 민족반역자 趙暉와 卓靑이 高宗45년에 和州(永興)이북땅을 들어 元에 降附하여 元에서는 和州에 雙城總管府를 두어 咸南一帶를 統轄했다. 그후 공민왕시 東北面兵馬使 柳仁雨가 이곳을 쳐 收復했다. 이 때 千戶 李子春 李成桂 父子의 內應의 功이 커서 공민왕 10년에 李子春이 朔方道萬戶兼東北面兵馬使가 되었고 이것이 그 아들 李成桂의 出世의 契機가 되었다.

舊家世族 出身으로 憂國의 一念에서 祖宗의 疆域을 한치도 割讓할 수 없다고 굳게 다짐하여 禔王 14年 崔瑩은 禔王과 密議하여 明의 遼東(定遼衛) 征伐을 決行했다. 國王은 同年 4月 1日 鳳州에서 崔瑩 李成桂에 遼東征伐을 命令했다. 이에 대하여 救國의 英雄으로 舊族世家 出身의 老 崔瑩과 比肩하는 咸興 元의 支配下에서 地方의 支配族으로 있던 新興 青年 將軍 李成桂는 四不可論을 들어 國王께 忠情으로 反對했다. 즉 一. 以小逆大—不可, 二. 夏月發兵二不可, 三. 舉國遠征倭乘其虛三不可, 四. 時方暑雨弓弩膠解大軍疾疫四不可라하여 진정으로 國王께 諫했다. 그러나 王은 崔瑩의 주장에 조차 北伐을 강행함에 李成桂는 다시

꼭 大計를 결행하려면 大駕를 西京에 머무르시고 가을을 기다려 出兵케 함이 좋으며 곡식을 들에서 수확하여 大軍의 軍糧이 풍족할 때 북을 치며 進軍하도록 함시다. 지금은 出兵할 時期가 아니니 遼東의 一城을 함락 시킨다 해도 장마가 바야흐로 내려 大軍이 前進할 수 없으며 전쟁이 장기화되고 軍糧이 결핍하게 되어 결국은 禍亂을 초래할 것입니다.²⁾

고 諫했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李將軍의 忠諫을 무시하고 崔瑩에 의하여 격려된 王은 우왕 16年 4月 12日 八道都統使에 崔瑩 左軍都統使에 曹敏修 右軍都統使 李成桂를 임명하고 左右軍 38,830名 補助軍 11,634名 합 50,464名 軍馬 21,682匹이었다.³⁾ 5萬 大軍은 西京을 출발하여 北方 進軍을 강행했다. 5月 7日 大軍이 압록강의 威化島에 나아가서 주둔하게 되자 장마라 물이 범람하여 作戰의 어려움이 말미 아니었다. 이에 李成桂는 曹敏修와 같이 左右軍 都統使가 함께 國王께 進軍不可를 보고했다.

1. 앞으로 遼東省 까지 가는데는 河川이 많고 장마 물이 범람하여 건너가기가 어려우며
2. 적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保國하는 길이며
3. 遼明交涉使 朴宜中이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큰 나라를 치는것은 宗社와 人民의 福이 아니며
4. 지금 장마철이라 활이 풀리고 갑옷이 무거워 군사와 군마가 모두 피폐하였는데 이와 같은 군대로 堅城을 공격하는 것은 必勝을 기하기가 어렵다.
5. 이 시기에 군량미도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면 進退幽谷에 빠진다.⁴⁾

는 理由 條件을 列舉하여 回軍하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國王과 總司令官 崔瑩은 이 보고를 묵살하고 進軍을 督勵했다. 崔瑩은 出軍時 總指揮를 위하여 出戰코저 했으나 國王이 함께 政事를 論하자고 불들어 두었으며 함께 督勵키 위하여 安州까지 北上하였으며, 成州에 와 있었다. 이 때 軍에서는 脫營兵이 꼬리를 물었고 軍氣가 말미 아니었다. 國王은 過涉察理使로 金完을 前方軍에 보내어 金帛馬匹로 諸將을 위로하고 進軍을 독려했다. 그러나 李將軍은 金完을 軍中에 억류하고 거듭 보고 진의하여 軍에 餓死者가 속출하고 물이 깊어 行軍의 곤란함을 역설하여 回軍할것을 간청했다. 遠征軍

2) 『高麗史』 卷 137, 列傳卷第 50, 辛禔列傳 5.

3) 上揭書.

4) 上揭書.

指揮官의 所信이 이와 같았고 軍隊의 士氣는 땅에 떨어졌고 厭戰의 氣運은 全軍에 팽배했다. 이번의 北伐은 애당초 軍隊를 徵兵할 때 부터 人民의 원성이 冲天했다. 夏月의 發兵은 常識을 초월한 것이었다. 百姓은 農期를 失期하여 稼穡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처음 부터 無理였다. 曹敏修 以下 沈德符 李茂 王安德 李承源 朴葦 崔雲海 慶儀 崔鄴 崔公哲 趙希古 安慶 王賓 鄭地 池湧奇 皇甫琳 李彬 具成老 尹虎 裴克廉 朴永忠 李和 李豆蘭 金賞 尹師德 慶補 李元桂 李乙珍 金天莊等 諸將은 모두 救國의 英雄 李成桂將軍의 命令에 따르기로 맹세하고 李成桂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지어는 曹敏修까지 李成桂 앞에 나아가 울면서 호소할 정도였다.

장군 여러분! 우리가 上國의 국경을 침략하면 天下에 罪를 범하게 되어 나라와 人民에 禍가 닥쳐올 것이오.⁵⁾

이 一喝에 諸將帥들은 李成桂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우리 東方의 安危가 公의 一身에 매였으니 어찌 敢히 命令에 따르지 않겠소.」 南閔 趙仁沃의 謀策에 의하여 이에 李將軍은 쿠데타를 決心했다. 루비콘 江을 건너게 되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 졌던 것이다. 「回軍! 군대를 돌려라! 군대를 돌려 돌아가 國王 측근의 잔악한 무리들을 除去하여 人民을 편안케 하리라」⁶⁾ 李成桂의 命令 一下에 五萬大軍은 進軍에서 창칼을 돌려 回軍을 단행 압록강을 건너 首都 開京을 향하여 물밀듯이 내려왔다. 때는 5月 22日이었다. 督戰次 安州에서 成州에 와 있던 禍王과 崔瑩은 황급히 開京에 돌아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諸道의 軍隊로 하여금 開京에 集結하여 방어케 했다. 李成桂는 前日에 威化島로 進軍을 독려키 위하여 國王이 파견했던 過涉祭理使 金完을 軍中 抑留에서 풀어 國王께 보내어 글로 崔瑩의 罪를 열거하여 除去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들이 열거한 죄목은 「최영이 首相이 되어 祖宗 以來 事大의 意를 생각치않고 大兵으로 장차 上國을 侵犯할려한 것으로, 盛夏에 群衆을 동원하여 三韓에 失農케 했고 倭寇가 후방의 빈 틈을 타서 깊이 쳐들어와서 人民을 살육하고 우리의 府庫를 태우게 했으며 더욱 漢陽에 遷都할려고 하여 中外를 騷然케 했으니 지금 崔瑩을 제거치 않으면 반드시 宗社가 없어 질것이라고 하면서 최영의 제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禍王은 前密直副使 陳平仲을 파견하여 諸將에 諭示하기를

命을 받고 疆域을 나갔는데 이미 節制를 어겼으며 兵을 들어 闕을 向함은 또 綱常을 犯한 것이로다. 이 弊端을 일으킨 것은 진실로 寡人 때문이다. 그러나 君臣의 大義는 참으로 古속의 通規인데 卿이 讀書를 좋아하니 어찌 이를 모르겠소 하물며 또한 疆域은 祖宗으로 부터 받았으니 어찌 可히 남에게 주겠소 軍士를 일으켜 이에 抗爭하는 것만 같지 않다. 그러므로 과인이 大衆에 叩한바 大衆이 모두 울다 하였도다. 어찌 敢히 違背할 것이오. 비록 崔瑩을 지목하여 말을 하나 崔瑩이 과인을 막아 호위한 사실은 卿等이 아는 바며 우리나라

5) 上揭書.

6) 上揭書.

에 勤勞한 것도 또한 경들이 아는 바다. 敎書가 到着하는 날에 執迷하지 말것이며 改過에 吝嗇하지 말고 富貴를 保全하여 始終을 圖謀하기를 참으로 과인은 바라노라 卿等은 어떻게 생각하오.⁷⁾

하고 간곡히 효유하고 倭長壽를 또 과전하여 諸將에 金을 下賜하여 위로하였으나 革命軍은 이를 묵살하고 都門 밖에 進駐했다. 李成桂의 지지 세력인 東北面 人民과 女眞人들이 李成桂 回軍의 소식을 듣고 開京으로 달려오는 자가 1,000여인이 넘었다. 이와는 對照의으로 禍王이 府庫의 金帛을 풀어 軍士를 모집해도 응모한 자는 노예와 市井의 험잡배 수십인에 불과 했으니, 天下의 人心은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諸道에서 來援하는 軍隊가 거리에 차 軍隊를 나누어 四大門을 수비하고 李成桂 曹敏修의 官爵을 削奪하고 崔瑩을 門下侍中 禹玄寶를 右侍中 宋光美를 贊成事 安沼를 評理 禹洪壽를 司憲府 大司憲 鄭承可를 鷹揚軍上護軍 趙珪를 密直副使 金若采를 知申事로 임명했다. 그리고 저자에 크게 제시하기를 「敏修等 諸將을 잡는 자는 官私奴隸를 莫論하고 크게 爵賞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革命軍은 都城으로 진격하니 右軍은 崇仁門으로 左軍은 宣義門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曹敏修軍과 柳曼殊軍은 永義署橋에서 崔瑩의 軍에 격퇴 되었다. 그러나 李成桂軍은 崇仁門으로 들어가 黃龍大旗를 세우고 善竹橋로 부터 男山으로 진군하니 男山에서 방어하던 崔瑩 휘하의 安沼軍은 괴멸되었다. 이에 崔瑩은 壯麗한 離宮花園으로 후퇴하여 王과 王妃와 合流했다. 革命軍은 數重으로 花園을 포위하고 崔瑩을 내어 놓으라고 고함치며 宮殿을 부수고 침입하여 郭忠輔가 잡아내어, 大義를 거슬리고 國家를 위해롭게 한 반역의 罪로 다스려, 高峰縣에 流配했다가 다시 合浦로 移配하고, 다시 12月の 嚴冬雪寒에 巡軍獄에 가두고 王安德 鄭地 柳曼殊 鄭夢周 成石麟 趙浚으로 하여금 鞠問케했다. 곧이어 崔瑩을 忠州에 流配하고 다시 巡軍獄에 잡아다가 가두었다가 典法判書 趙仁沃 李濟등의 주장으로 處刑되었다. 이리하여 明을 배척하고 國家의 保衛를 위하여 親元을 주장하던 王黨派의 巨木은 쓰러졌던 것이다. 그리고 崔瑩의 一黨으로서 禍王의 羽翼 세력이던 贊成事 宋光美를 原州에 密直副使 趙珪를 角山에 同 安沼를 安邊에 同 鄭承可를 寧海에 判密直 印原寶를 咸昌에 同知密直 安桂를 鳳州에 知密直 鄭熙啓를 陰竹에 密直 趙琳을 豐州에 流配하고 配所에서 鄭承可 安沼 宋光美 印原寶를 斬殺했다. 그리고 內願堂 僧 玄麟을 下獄하여 鄭夢周등에 국문케했다. 玄麟은 僧兵을 모집하여 최영과 함께 革命軍에 抗戰한 罪名이었다. 崔瑩을 叛逆의 罪로 몰아 斬殺할 때 李成桂 一黨들의 주장을 國王에 옥박질은 上疏에서 살펴보던 典法判書 趙仁沃과 李濟등은

崔瑩이 우리 玄陵(恭愍王)을 섬겨 興王의 亂을 平定하고 僧을 北鄙에 구축하였고 上王(禍)을 섬김에 미쳐서는 倭寇를 昇天府에서 격퇴시켜 社稷을 보존하였고 群兇을 울해 봄에 소탕하여 生民을 구제했나니 그 功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大體에 어두어 群議를 들보

7) 上揭書.

지 않고 政策을 결정하여 遼東을 공격하여 天子에 죄를 얻어 거의 나라를 전복하는데 이르게 하였으니 소위 功이 罪를 가리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殿下는 大國을 섬기고 하늘을 두려워 하는 뜻을 생각하사 밝게 그 죄를 바꾸어 세 祖宗의 靈에 告하고, 天下의 노여움을 풀게 하므로 세 三韓 萬世의 太平을 열게 하옵소서.

라고 했고 門下府郎舍 許應은 上疏하여

崔瑩以開國功臣之後 遇知玄陵 奮其忠義 歲癸卯德興將以華代宗 瑩出萬死以正國統 至上王朝 海寇猝犯畿甸 瑩督諸軍 力戰却之 以安社稷 林堅味等濁亂朝政 斲喪王室 天怒於上 民怨於下 瑩奮忠義 而廓清之 誠社稷之臣也 然不學無術 加以老耄 昧於事大之禮 勸上西幸 立威育衆 獨斷自用 遂發攻遼之師 得罪天下 流毒生民 幾覆社稷 前功盡棄 以瑩之功 不幸有此叛逆之罪 誠一國所不忍 然在天下之議 所謂人得而誅之者也 願殿下斷以大義 函命決罪 以謝天子.⁸⁾

라하였다. 諫議大夫 尹紹宗은 崔瑩을 論하여 「功蓋一國 罪滿天下」⁹⁾라 한것을 世以爲名言이라 했다고 高麗史에 적혀있다. 이와 같은 紹宗의 論評이 李成桂派들의 共通된 論評이었다.

崔瑩은 麗末에 崛起한 英雄 李成桂의 北方 女眞 騎馬軍團을 中心으로 한 軍閥 武將 세력에 對抗하던 唯一한 舊家 世族의 軍閥 武將 세력이었고 高麗를 위한 마지막의 忠臣 武將이었다. 崔瑩이 죽자 고려에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후로 사실은 고려가 멸망한 것과 다를 없었다. 이를 李肯翹은 燃藜室記述에서 申象村의 말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禍昌之事 當以元天錫所記爲信史 崔瑩死而麗無人 鄭道傳入而麗有賊 所謂以一人興以一人亡¹⁰⁾

이라했다.

崔瑩은 開國功臣 崔俊邕의 11世孫이요 名相 崔有淸의 5世孫이란 名門華族의 出身이었으며 高麗王朝의 舊臣世族이었다. 그는 風姿가 奇絶하고 膂力이 過人했다. 楊廣道都巡問使 麾下에서 倭賊을 잡아 武勇을 떨치고 恭愍王 元年 趙日新의 亂을 安祐 崔源과 함께 討平하여 護軍과 大護軍으로 승진하여 柳灌과 元나라에 援軍으로 가서 빛난 戰功을 세웠으며 印璫과 함께 西部 八站을 격파했다. 倭 400餘隻을 吾乂浦의 전투에서 격퇴했다. 공민왕 11년에는 安祐 李芳實과 더불어 紅巾敵을 격퇴하여 나라를 구하였다. 同12년에는 金鏞一黨이 亂을 이르켜 공민왕을 弑害하려는 興王寺의 변을 禹禪 安遇慶 金長壽과 더불어 군사를 지휘하여 이를 진압 다 잡아죽여 盡忠奮義佐命功臣에 錄해졌다. 12년에 崔濡가 德興君을 옹립하여 1萬의 元軍으로 쳐들어옴에 崔瑩은 이를 擊退시켰다. 때는 倭寇가 치성하여 東西江都指揮使, 六道都巡察使黜陟將帥, 楊廣全羅

8) 『高麗史卷』 113, 列傳卷第 26, 崔瑩傳.

9) 上揭書, 『高麗史節要』卷之 33, 辛禍 4.

10) 李肯翹: 『燃藜室記述』卷之一, 太祖朝 高麗政亂 王業肇基. 申敏, 『象村雜錄』.

慶尙道都統使, 慶尙全羅楊廣都巡問使, 西北面都巡慰使로 國家의 운명이 風前燈火 같을제에 鴻山大捷을 위시하여 大小 수십의 전투에서 倭敵을 섬멸하여 救國했다. 倭寇 토벌의 偉勳은 李成桂와 나란히 빛났다. 그는 그 功勞로 鐵原府院君, 安社功臣이 되었다. 그는 어려서 부터 그 아버지 司憲糾正 崔元直의 敎訓에 「네가 마땅히 金 보기를들과 같이 하라」는 敎훈을 익혀 治座을 일삼지 않고 清廉潔白하고 剛直하여 오직 70平生에 愛民忠君의 丹忠으로 일관했다. 李成桂一派의 주장으로 이 老愛國者 忠臣이 처형 될 때 刑에 臨하여 조금도 안색과 언동이 변하지 않고 태연자약했으며 그가 죽은에 온 거리는 철시하고 애도했으며 그의 길가에 버려진 처형된 시체에는 길가는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했다. 그는 벼슬이 首相(門下侍中)에 出將入相의 영예를 누렸지만 그는 나라와 임금에 충성을 다했건만 그의 최후는 너무도 비참했다. 그의 웅대한 北伐——고려 一代의 北進政策의 掉尾도 헛되게 수포로 돌아 갔다. 그러나 그의 丹忠 偉節은 靑史에 빛나고 있다. 그러나 이성계파는 그를 평하여 功蓋一國 罪滿天下라 했다. 罪는 明天子에 저지른 죄라한다.

이제 大權은 李成桂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崔瑩政權은 붕괴되고 그의 一派는 完全히 몰락되었다. 李成桂 一派가 政權을 장악했다. 崔瑩 禹玄寶를 代身하여 左侍中에 曹敏修 右侍中에 李成桂 簽書密直司事兼大司憲에 趙浚이 임명되고 創奪官爵되었던 回軍 諸將이 모두 復職되었다. 政府의 要職은 모두 李成桂一派의 手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曹敏修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李成桂派는 착착 그들의 爪牙를 要職에 배치하여 갔다.

威化島 回軍後 國家의 政權이 모두 李成桂등 軍閥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高麗 王室의 運命이 실로 累卵의 危機에 봉착하자 禔王은 悲壯한 작오로 運命의 돌파구를 뚫고 꺼져가는 고려의 운명을 돌리고져 최근 세력인 宦官 80餘名과 함께 武裝하여 軍閥의 頭目인 李成桂 曹敏修 邊安烈을 殺害하고자 밤에 그들의 집을 습격했으나 그들은 모두 그들의 軍隊를 이끌고 門外에 駐屯하고 있었기 때문에 所期의 目的은 失敗로 돌아 갔다. 이에 軍閥 諸將들은 崇仁門에서 會同하여 李和 趙仁璧 沈德符 王安德을 宮中에 파견하여 宮中의 武裝및 말을 모두 압수하고 軍隊를 動員하여 宮中에 進軍하여 禔王을 遼東征伐의 責任을 물어 廢하여 傳國寶를 거두어 定妃(恭愍王妃)殿에 두고 江華島에 流配시켰다.

新王의 擁立을 두고 曹敏修 李成桂의 兩大武將이 尖銳하게 對立했다. 李成桂一派는 王氏宗室에서 選定코져 했으나, 李成桂의 新進세력에 對立되는 曹敏修를 위시한 舊勢力은 禔王의 아들 昌을 옹립했다. 曹將軍은 고려의 政界와 學界를 代表하는 耆德 碩學 鴻儒이던 宰相 李穡의 「當立前王之子」란 論理에 힘입어 定妃(恭愍王妃)의 下敎로 9歲의 昌王을 세웠다. 昌王을 옹립한 曹敏修는 李成桂에 어깨를 겨누는 武將이요 右

侍中 李成桂의 위인 左侍中의 重職에 있었다. 曹敏修가 出世하는 데는 執權者 李仁任의 恩顧가 컸었다. 昌王은 바로 李仁任의 外四寸인 李琳의 女 謹妃의 所生이었던 것이다. 이 政權 싸움에서 曹敏修는 判定勝했고 李成桂는 判定敗했다. 李成桂의 不滿은 대단했다. 그는 稱病하고 侍中의 職을 辭退했다. 그러나 王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曹敏修에 對한 李成桂派의 反感은 대단하였다. 이때 李成桂派에서 맹렬히 추진한 私田改革에 反對한 曹敏修를 肅清했다. 私田改革을 主導한 趙浚이 軍閥세력으로 마지막 敵對세력이던 首相 曹敏修를 탄핵하여 人民의 土地와 民을 奪占하고 私田改革論을 反對한다고 昌寧으로 流配하고 名望은 있으나 文弱한 李穡을 門下侍中(首相)에 앉히고 李成桂는 門下 守侍中(副首相) 兼都摠中外諸軍事로 兵馬大權을 장악하고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또 李成桂派의 鄭夢周가 門下評理 鄭道傳이 成均館大司成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政界의 요직에는 李成桂一派의 신진 軍閥세력이 완전히 占有하게 되었다.

2. 田制改革과 李將軍派의 승리

李成桂가 威化島 回軍이란 쿠데타를 일으켜 軍政의 兩大權을 장악하고 그의 一派를 要職에 배치하고 치밀하게 革命을 수행해갔다. 그중에서도 고려 왕조를 사실상으로 타도한 革命的인 大事件이 田制改革이었다.

高麗의 田制는 科田法 즉 田柴科로 一切가 國有였다. 즉 公田이었다. 그러나 武臣執政期와 對蒙抗爭期를 통하여 田制가 紊亂해지고 權豪世族에 의한 土地의 兼併이 加速化되어 公田이 私田化되어 갔다. 貴族들의 功蔭田 賜牌之地는 阡陌을 連하였고 百姓은 一無立錫之地의 형편이었다. 따라서 天下의 農民은 豪貴들의 佃戶로 轉落했다. 따라서 農民에 받던 租稅의 감소는 國家財政을 빈사의 지경에 까지 몰아갔다. 李成桂派가 田制改革을 主張한때는 高麗의 층성세력인 舊家世族의 經濟적인 基盤을 붕괴시켜 그들을 沒落케 하고 李成桂一派의 新興 士大夫 新興軍閥세력의 經濟적 기반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天下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재편성하여 權貴의 收奪에서 農民층을 해방하여 天下의 民心을 收攬하고 새로운 秩序의 수립을 꾀하는데 있었다. 田制의 紊亂을 改革하려는 운동은 中興의 英主 恭愍王때로 부터 시도되었다. 공민왕은 中央 貴族들과 하등의 親緣關係가 없는 昌寧 觀龍寺의 婢女의 所生인 僧侶 辛旽을 起用하여 田民辨定都監이란 관아를 설치하여 田制改革을 단행했다. 그러나 貴豪族들의 反對에 부닥쳐 有終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 農民 奴婢들로부터 聖人이라 칭송 받던 辛旽은 權貴들로부터 妖僧이라고 배척되었다. 이 거창한 革命的인 改革의 수행에는 李成桂 같은 강력한 군사 세력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禡王代에 오면 田制의 붕괴는 그 극도에 달했다. 官吏에 支給할 田柴科의 田結이 立錐의 땅이 없었고 官員 士卒에 지급할 祿俸도 二十分之一도 줄수 없었고 地主의 重復과 收租의 回數가 無常했다. 正히 人民의 塗炭이었다. 이 事情을 高麗史에서 살펴볼 때

毅明以降 權姦擅國 斷喪邦本 用度濫遣 國體等事 家抽戶斂 徵科萬端 由是戶口日耗 國勢就弱 高麗之業遂衰 叔季失德 版籍不明 而良民盡入於巨室 田柴之科廢而爲私田 權有力者田連阡陌 標以山川 徵租一歲或至再三 祖宗之法盡壞而國隨亡¹¹⁾

라 하고 있다. 따라서 新秩序를 수립하려는 李成桂派에 의한 田制改革의 단행은 歷史的인 必然性이었다. 이에 禡王을 폐출한 익년에 李成桂 趙浚 鄭道傳등이 私田改革論을 들고 나와 맹렬히 주장했다. 趙浚은 昌王에 上書하여 土地兼併과 田制紊亂으로 인한 亡國의 弊害를 極論하고 이의 改革을 주장했다. 이에 人民의 田地를 奪占 兼併하고 있던 舊家世族의 맹렬한 反對에 봉착했다. 都堂 會議에서 趙浚의 改革論을 論議한 결과 首相(門下侍中) 李穡이 舊法을 경솔히 고침이 不可하다고 反對하여 나섰다. 反對派는 李穡 曹敏修 李琳 禹玄寶 邊安烈 權近 柳伯濡 文益漸등이었다. 鄭夢周는 中立的인 태도를 견지했다. 政界의 要職에 배치된 李成桂派인 趙浚 鄭道傳 許應 趙仁沃 黃順常 李行 尹紹宗등의 맹렬한 주장으로 田制改革에 反對하는 者를 무자비하게 彈劾 숙청하여 恭讓王 2年 9월에 이를 斷行하기에 이르렀다. 公私田籍을 저자에서 一切를 소각하였다. 이에 恭讓王도 눈물을 흘렸다. 새로 科田法을 공양왕 3年 5월에 시행했다.

이로써 李成桂 軍閥勢力은 經濟的 基盤을 획득하게 되었고 고려 왕실과 왕실을 지탱하던 王族 貴族들의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土地經濟力을 기반으로한 舊家世族들의 軍事的인 生産的인 세력기반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따라서 고려 왕조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3. 恭讓王의 擁立과 廢假立眞 쿠데타

李成桂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即位한 昌王에 대한 李成桂의 감정은 좋지않았다. 거기다 昌王은 李成桂 反對派인 舊勢力에 조종당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江華에서 驪興에 移配된 禡王은 李成桂를 타도하여 捲土重來하려고 버리고 있었다. 이 때 不幸하게도 金竹事件이 일어나게 되고 禡王 父子의 慘變을 당하게 되었다. 昌王元年 11月 禡王을 몰래 찾아가간 崔瑩의 甥姪 즉 寧妃의 姑從인 前大護軍 金竹와 亦 崔瑩의 一派요 姻戚인 前副令 鄭得厚에 禡王이 올면서

울울하게 이곳에 거처하고 있어 손을 묶고 죽음에 나가게되니 단지 한力士를 얻어 李侍中(成桂)를 죽이던 내 뜻이 가이 이루어지겠노라. 내가 본래 禮儀判書 郭忠輔와 친한 사이

11) 『高麗史』卷 78, 志卷第 32, 食貨 1.

었으니 네가 찾아가서 보고 이를 도모할지이다.

라하고 한 자루의 칼을 주어 郭忠輔에 보내면서

이번 八關日에 擧事하는것이 옳을 것이니 이 일이 成功하면 妃妹로써 妻를 삼아주어 富貴를 같이 누리게 하겠노라.¹²⁾

간곡히 당부했다. 金侁가 密旨를 가지고 郭忠輔에게 告하니 郭이 거짓으로 응낙하는체 하고는 곧장 李成桂에게 달려가서 밀고 했다. 郭忠輔의 背信으로 일은 실패하고 말았다. 八關小會에 李成桂는 참석치않고 집에 있었다. 이것도 모르고 金侁와 鄭得厚가 밤에 李成桂의 집으로 갔다가 엄중 경계하던 李將軍의 경비병에게 잡히게 되어 鄭得厚는 그 자리에서 목을 찢러 自決하고 金侁는 붙들려 끌려와 巡軍獄에 갇히게 되어 엄중한 문초를 받게 되었다. 드디어 事件의 전모가 들어나 舊家世族의 元老大臣이 거의 전부 이 事件에 連累되었다. 그들은 共謀하여 禡王의 復位를 계획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고려를 지탱할려던 고려의 충신들은 모두 숙청되어 流配되었다. 邊安烈 李琳 禹玄寶 禹仁烈 王安德 禹洪壽 趙方興등 고려 王室의 羽翼 세력이 무자비하게 잘려나가게 되었다.

李成桂派의 巨頭들이 興國寺에 모여 군대로 삼엄한 경비와 示威를 벌리면서 判三司事 沈德符·門下贊成事 池湧奇·門下贊成事 鄭夢周·政堂文學 便長壽·門下評理 成石璘·知門下府事 趙浚·判慈惠府事 朴歲·密直副使 鄭道傳이 會同 議論하여 廢假立眞을 결의했다.¹³⁾ 그들의 主張은 禡王과 昌王은 본래 王氏가 아니고 辛氏 임으로 可히 宗祀를 받들 수 없으며 또한 明나라 天子의 命도 있으니 마땅히 假를 廢하고 眞을 세워야 한다. 定昌君 瑤는 神宗의 7代孫으로 그 族屬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왕으로 세울거란 것이었다.

李成桂가 王族 中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두고 서도 定昌君을 王으로 추대한대는 李成桂로서는 계산이 있었다. 그는 李成桂의 姻戚이었고 性品이 慈仁柔懦하고 優遊不斷하여 李成桂의 傀儡로서는 안성마춤이었다. 그는 너무도 王者之材로서는 어울리지 않았기에 李成桂의 羽翼爪牙之士 까지도 不可하다 했다. 趙浚은 반대하여 「定昌君은 富貴로 生長하여 다만 治財할 줄만 알고 治國할 줄은 알지 못하니 왕으로 세울수 없다」 했으며 成石璘도 反對하여 「임금을 세움에는 마땅히 어진이를 가릴것시오 반드시 그 族屬의 親疎를 論할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李成桂의 主張대로 관철되어 李成桂 鄭夢周등 9功臣들은 百官宗親을 인솔하고 恭愍王의 定妃宮에 나아가 군대로 호위하여 李成桂派가 作成한 定妃의 教旨를 받들어 廢假立眞하여 昌王을 江華로 廢黜하고 恭讓王을 迎立하여 壽昌宮에서 즉위했다. 恭讓王은 左右에 말하기를 「나의 平生에 衣食과

12) 『高麗史』 卷第137, 列傳第 50, 辛禡 5.

13) 『高麗史節要』 卷之 34, 恭讓王 1.

使令이 다 足하였는데 이제 짐이 이 처럼 무거우니 할 바를 알지 못하겠노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王이 親히 太廟에 祿祭하고 即位를 告하고 禮가 畢하여 百官이 箋을 올려 賀禮를리고 還宮하였는데도 恭讓王은 감히 南面하여 앉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判門下府事 李穡이 간곡히 南面을 권함에 李成桂에 말하길 「내가 본데 德이 없어 再三 사양했는데도 할수없이 大位에 앉게 되었으니 卿은 도모하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로써 사실상 고려는 멸망하고 만것이다. 昌王의 外祖요 李仁任의 外從인 李琳과 그 子 李貴生 女婿 柳琰 宋濂 外孫女婿 盧龜山 姪 李勲을 遠地로 流配하고 金竹의 事件에 연루시켜 門下評理 鄭地 李居仁 前判厚德府事 柳惠孫 李乙珍 前密直 李惟仁 柳蕃 趙湖 安柱 등 高麗의 支持세력 27人을 流配하고 高麗와 前王의 지지 세력인 李穡과 그 子 種學을 罷職하고 李崇仁 曹敏修(귀향후 放免되었음) 河崙 權近 등 고려의 충성세력을 모두 肅清해 버렸다. 그리고도 不安하여 12月에는 政堂文學 徐鈞衡을 파견하여 江陵에서 禔王을 斬弑하고 藝文館大提學 柳珣을 江華에 파견하여 昌王을 斬弑했다. 이로써 고려의 충신들은 모두 一掃되었고 사실상 고려는 멸망하고 말았다. 反面 李成桂 鄭夢周 등 9功臣은 奮忠定難匡復變理佐命功臣에 形像을 麟閣에 그려 걸고 李成桂는 和寧郡開國忠義伯으로 封爵하고 食邑 1千戶 食實封 300戶 田 200結 奴婢 20口를 賜하고 沈德符는 靑城郡 忠義伯에 田 150結 奴婢 15口를 下賜하고 鄭夢周 등 7人에는 모두 忠義君으로 封爵하여 각각 田 100結 奴婢 10口를 下賜하고 錄卷은 開國功臣 裒玄慶의 例에 依하여 中興功臣이라 稱하고 子孫을 蔭職하되 直子는 3等を 超援하고 直子가 없으면 甥姪 女婿에게 2等を 超援하여 子孫의 政案에는 모두 中興功臣 某의 몇 世孫을 기록하고 有敕를 永世에 미치도록 하는 恩典을 베풀었다. 恭讓王을 옹립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9功臣은 一世의 富貴榮華를 누리게 되었고 15年間이나 섬기고 臣事한 禔昌二王을 무자비하게 斬弑한 李成桂는 國王의 權威를 능가했다.

그러던 廢假立眞이란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李成桂派에 의하여 편찬된 高麗史에 의하면

辛禔의 小字는 牟尼奴이니 吨의 婢妾 般若의 所生이다. 或은 이르기를 처음 般若가 아이를 배어 달이 차매 吨이 그의 친구 僧 能祐의 母家에 가서 出産케 하고 能祐의 母가 기르다가 一年이 못되어서 아이가 죽으니 能祐가 吨의 꾸지람을 두려워 하여 길으로 容貌가 닮은자를 求해서는 이웃 집 隊卒의 아이를 몰래 데려다 다른 곳에 두고 辛吨에 말하기를 「아이가 병이 있으니 옮겨서 기르기를 청한다」하여 신돈이 이를 허락하였다. 一年 뒤에 신돈이 데려다 집에서 기르는데 同知密直 金鉉이 賂物로 준 婢 金鉉으로 써 乳母를 삼으니 般若도 또한 그의 아이가 아닌 줄을 알지 못했다. 공민왕이 항상 後嗣 缺을 걱정하다가 하루는 微行하여 吨의 집에 이르니 吨이 그 아이를 가리켜 말하기를 「願컨대 殿下는 養子를 삼아서 後嗣를 세우소서」하니 王이 홀겨 보고 웃으며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것을 허락한 것이다. 辛吨이 가만히 그 黨 吳一鸞을 시켜 글을 만들어 洛山 觀音에

빌기를 「願컨대 弟子의 分身인 牟尼奴로 하여금 福과 壽로 나라에 머물게 하소서」 하였다. 辛旽이 水原에 流配됨에 미쳐 王이 近臣에 말하기를 「내가 일찌기 旽의 집에 가서 그 婢를 사랑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驚動케 하지 말고 잘 보호하라」 하더니 旽이 이미 誅斬되매 王이 牟尼奴를 불러 明德太后殿에 들이고 守侍中 李仁任에 이르게를 「元子」가 있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 하고 因하여 말하기를 「美婦가 旽의 집에 있어 능히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을 듣고 드디어 사랑하여 곧 이 아이를 두었다」 고 하였다. 뒤에 王이 牟尼奴로 後嗣를 삼으려고 就學하기를 請하니 太后가 하고자 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조금 크거던 就學시키더라도 늦지 않다」 고 하였다. 王이 知申事 權仲和에 命하여 前政堂 李穡의 집에 가서 文臣을 모아 牟尼奴의 이를 고칠것을 의논케 하므로 이에 여덟字를 써서 바치니 王이 禍라고 命하고 仍하여 侍中 慶復興 密直提學 廉興邦 政堂文學 白文寶를 불러 의논하고 禍를 江寧府大君으로 封하고 文寶를 田祿生 鄭樞 등으로 하여금 스승이 되게 하였다. 23年 9월에 王이 禍를 故宮人 韓氏의 所生이라 冒稱하고 韓氏의 三代 및 그의 外祖까지 追贈했다. ……太后 및 慶復興은 宗親을 세우려하고 李仁任은 禍를 세우고자 하여 議論이 決定되지 아니하는데 都堂이 서로 쳐다만 보고 감히 發言하지 못하거늘 判三司事 李壽山이 말하기를 「오늘의 計策은 마땅히 宗室에 있다」 고 하니 永寧君 瑜와 및 密直 王安德 등은 仁任의 뜻에 阿附하여 크게 말하기를 「王이 大君으로 後嗣를 삼았으니 이를 두고 어디에 求하겠는가」 하매 仁任이 百官을 거느리고 드디어 禍를 세우니 나이 10歲였다.」¹⁴⁾

이것이 辛禍傳의 記事다. 이 記事에서 볼 때 禍王의 姓이 辛氏라고 辛旽의 子라하나 그 외에 隊卒이 아들이란 說과 韓氏 所生의 王氏라는 세갈래의 說이 있다. 그중에 어느것이 옳은것인지 모르겠다. 고려사의 기사 자체가 李成桂와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중잡을 수 없다. 이와 같은 說은 李成桂派인 尹紹宗 趙仁沃이 퍼트렸으며 이를 들고 나온것도 또한 이성계파였다. 李成桂派는 조선혁명을 正當化시키기 위하여 이 千古의 秘史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당시 이성계파가 들고 나온 明나라 天子의 旨란 것을 볼 때 李成桂파가 꾸며낸 일도 당도안한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明帝旨는 이성계파가 주장하는 것과는 正反對의 것이었다. 廢假立眞할 적에 내린 定妃의 敎旨에

於洪武二十二年九月間 門下評理 尹承順等回自京師 欽奉聖旨 節該高麗君位 自王氏被弒絶嗣 後雖假王氏 以異性爲之 非三韓世守之良謀 果有賢智陪臣在位 定君臣之分 則雖數十歲不朝 亦何患哉 欽此詢諸國論 宗威大小臣僚僉曰 宗親定昌府院君瑤乃太祖正派云云¹⁵⁾

라 하여 恭愍王이 弒害 당하고 난후에 王氏가 아닌 가짜 王氏 로서 뒤를 이어 異姓으로 왕을 삼은것은(辛禍昌王을 의미) 三韓을 世守할려는 良謀가 아니라고 했다. 즉 禍王 昌王은 王氏가 아닌 다른 姓으로서 왕을 삼은 것을 나무라고 바꾸기를 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재는 경작 明에 使臣간 門下評理 尹承順 簽書密直司事 權近在 昌王의 親朝를 간청하여 冊封을 받게 하고자 노력했으나 明 太祖는 도리어 禍王의

14) 『高麗史』 133, 列傳卷第 46, 辛禍 1.

15) 『高麗史世家』 卷第 45, 恭讓王 1.

放黜과 昌王의 承襲을 의심하여 거절했으며 禮部尚書 李原名에 불만과 의아를 토로했다.

高麗國復遣使來奏 權國事王昌乞入朝上不許 謂禮部尚書李原名曰 高麗國中多故 陪臣忠逆混淆 所爲皆非良謀 廢立自由 豈之韓世守之道哉 彼既囚其主 來言童子入朝 必有隱謀 不可信也 彼苟兵逆爲常事 皆繼踵而爲之 則人倫斃 而禮義亡矣 爾禮部其諭高麗 使童子不必來朝 果其國有賢智之臣 明君臣之分 妥民安國雖數世不朝 亦無所貴 不然 雖連年來朝亦何益哉.¹⁶⁾

라 하였다. 이를 볼 때 도리어 고려의 禔王 廢黜과 昌王의 翁립을 꾸짖으며 忠臣과 逆賊이 서로 섞여 廢立을 마음대로 하니 어찌 三韓 世守의 길이겠느냐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임금을 가두고 童子가 入朝하여 말한다니 반드시 음모가 있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도다. 저들이 참으로 叛逆으로써 常事를 삼는다면 모두 뒤를 이어 그것을 할 것이니 人倫이 없어지고 禮儀가 亡할 것이라고 하는 단호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것은 도리히 李成桂파가 禔王을 폐출하고 昌王을 세운 쿠데타를 신랄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것을 李成桂는 도리어 거꾸로 利用한 것이다.

이 明太祖의 聖旨가 담긴 咨文이란 것은 權近의 私拆事件과 함께 매우 의혹이 큰 사건이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昌王의 親朝를 請하기 위하여 門下評理 尹承順과 簽書密直司事 權近을 明에 使臣으로 보내었더니 明나라 禮部가 異姓을 王으로 翁립됨을 꾸짖는 咨文을 가지고 돌아오다 昌王의 國舅인 李琳의 私第에 들러 聖旨筒에서 取하여 열어 보고 天機를 누설하고 난후 수일 후에 都評議使司에 바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權近은 不忠함이 막심하고 陰謀가 헤아릴 수 없다 하여 李成桂派의 臺諫들의 준열한 탄핵으로 인하여 寧海에 流配되었다가 郎舍 尹紹宗의 탄핵으로 다시 棍杖 100에 興海로 移配되어 다시 臺諫의 탄핵으로 金海로 移配되었다. 李成桂派의 철저한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이 咨文은 李成桂派들이 變造시키고 난후 權近에 私拆 漏泄의 罪를 덮어 씌어 입을 틀어막고 迫害했으며 그들의 廢假立眞에 利用했던 것이다.¹⁷⁾ 金庠基博士의 견해와 같이 李成桂派가 中途에 變造한 지라 昌王의 신변에 危害를 감지하고 昌王의 舅인 李琳에게 報告하고 私拆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⁸⁾ 이 咨文私拆사건은 李成桂파들의 옹의주도한 음모라고 보겠다. 李成桂파에 의하여 咨文이 都評議使司에 報告提出하기 前에 變造된 사실을 權近은 몰랐었다. 그러다가 變造된 사실을 늦게 알고 權近이 의혹을 갖고 行動한 것 같으며 그 때문에 權近이 李成桂派에 의하여 박해 받은 것 같다.

16) 『明太祖高皇帝實錄』 卷 286, 洪武 22年 8月 癸卯條.

17) 『高麗史世家』 卷第 45, 恭讓王 1, 元年條에 己巳冬 昌所遣請朝尹承順齎禮部欽奉聖旨咨文來曰 高麗君位絕嗣以異姓假王氏 非三韓世守之良謀 果有賢知陪臣 在位定君之分 雖十歲不朝亦何患哉 連歲來朝又何厭哉 童子不必赴京 라고 內容을 正反對로 修正 造作해왔다. 이것을 볼 때 李成桂派의 치밀한 계획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使節中 누구를 매수한 것에 들림없다.

18) 金庠基, 『高麗時代史』, p. 799.

廢假立眞을 내세워 昌王을 폐하고 恭讓王을 옹립한 뒤에 李成桂政權은 順安君昉과 同知密直司事 趙胖을 明에 보내어 이 사실을 上國에 보고 하고 允許를 간청했다. 이 사실을 明實錄에서 살펴 보면

高麗遣使來言 國王王昌非王氏後 實辛屯子禍之子 國中人民多不信 故別求王氏宗親定昌府院君王瑤 迎立嗣位 以續王氏之後 伏望朝廷允所請 上諭禮部尚書 李原名曰 高麗限山隔海 其人多詐 今云廢黜異姓 擇立王氏宗親 則前者來言 童子入朝 吾不聽者 意必執國政者所爲 今其情見矣 且其眞僞莫知 若果爲本國臣民所推 亦聽其自爲 儼陰謀詐立 一旦變更盡爲虛妄 必將禍起不測 皆自取也 爾宜備容其國人知之¹⁹⁾

라는 記事가 있다. 明太祖는 전번에 禍王을 폐하고 昌王이 즉위했을 때 入朝할려는것을 들어 주지 아니한 所爲는 반드시 執政者의 所爲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情狀이 나타난 것이다. 辛氏를 폐출하고 王氏를 세웠다 하나 그 眞僞를 알 수 없다고 매우 의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明實錄의 기사를 검토할 때 李成桂一派들의 廢假立眞에 明帝의 聖旨를 구실로 했다는 것은 엄청나고 奸惡한 흥제와 음모임에 틀림 없으며 이에 반대하는 고려의 충신들을 숙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禍王의 出身에 대해서도 父王인 공민왕이 自己의 친자식이라 한 이상에는 第3者가 용책할 性質의 것이 아니다. 더욱 禍王傳에 辛屯의 자식이라 하고 그것도 사실은 신들의 자식도 아닌 無名 隊卒의 자라난것은 禍王을 非王氏로 몰기 위한 비열한 手作인듯한 인상을 짓기 어렵다. 當代의 名士 忠臣 元天錫이 禍王을 공민왕의 친자라고 直筆했던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²⁰⁾

李肯翹은 燃藜室記述에서 申欽의 말을 引用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禍昌之事當以元天錫所記爲信史 崔瑩死而麗無人 鄭道傳入而麗有賊 所謂以一人興以一人亡 大抵麗之亡 由於戊辰之廢主 廢主之後 如牧隱齊流尚存 一脈公議未泯 故其時道傳紹宗等輩 倡爲非王氏者爲忠 謂王氏者爲逆之 論策鼓朝廷 眩惑人心 遂得爲魚肉 士流箝制口舌 僅五年而國亡矣 生乎其時 正直自樹者 其爲生辛苦艱沛 當如何也 然而人心未盡眩 人口未盡箝 草野之間 有此董狐之筆 豈非石壓笋斜出者耶.²¹⁾

라 했다. 崔瑩이 죽자 고려에는 사람이 없어졌고 이른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일어서고 망한다는 것이다. 대개 고려가 망한것은 戊辰年에 禍를 폐했기 때문이다. 임을 폐한 뒤에도 목은과 같은 분들이 아직 남아있어 한가닥 공정한 논의가 없어진것은 아니었다. 그러문에 鄭道傳 尹紹宗등의 무리가 禍王을 王氏가 아니라고 하는 者는 충성한다하고 王氏라고 말하는 者는 반역자라는 論을 주장하여 조정을 혼란케 하고 人

19) 『明太祖實錄』 卷 291, 洪武 23年 正月 癸未條.

20) 『燃藜室記述』 卷之一, 太祖朝高麗守節諸臣附, 元天錫條, 元天錫, 『松谷詩史』.

21) 『燃藜室記述』 卷一, 太祖朝. 申 欽, 『象村集』.

心を 현혹케 하여 드디어 文學과 德行있는 선비들을 魚肉을 만들고 입을 봉하게 한지 겨우 5년 만에 나라가 亡했다고 한 史論은 매우 올바른 것이다. 李成桂派의 고려 찬탈을 위한 그들의 大義名分을 造作한 억울하고 잔악한 흥계다. 그들은 國王을 폐하여 庶人으로 만들고 禍를 江陵에 昌을 江華에 流配했었다. 그것도 부족하여 이성계파는 禍昌을 옹호한 李穡과 그 아들 李種學을 削奪官職하고 曹敏修를 廢하여 庶人으로 삼고 李仁任의 집을 誦하고 李穡 李種學 李崇仁 河崙 宦官 李芳 등 고려 王室派를 流配하고 曹敏修 權近을 三陟과 金海에 移配하고 文達漢의 職牒를 거두었다. 司宰副令 尹會宗이 上疏하여 禍昌을 죽이자고 주장하여 李成桂派는 恭讓王을 옥박길러 政堂文學 徐鈞衡을 江陵에 藝文館大提學 柳珣을 江華에 보내어 禍王父子를 斬했다. 이들父子는 李成桂 革命에 희생으로 바쳐졌다. 禍를 낳았기 때문에 不運의 女人 般若는 李仁任黨에 의하여 被殺되었었다. 그 가련한 女人의 입을 막으려는 奸計 때문에 희생되었었다.

고려 도살의 목을 조이던 이성계파는 가일층 고려 도살의 석사들을 가혹하게 조여 갔다. 그것이 有名한 葬初의 獄이다. 恭讓王元年 11월에 廢假立眞을 단행한 李成桂는 廢立을 告하고 승인을 받고져 順安君 王昉과 同知密直司事 趙胖을 파견했으나 明太祖는 禮部尚書 李原名에 諭旨를 내려 廢假立眞을 매우 疑訝해하고 이를 首肯치 않았다. 그러나 이들 使節은 所期의 使命은 달성치 못했으나 啞然 驚愕한 사실을 明으로 부터 들었던 것이다. 明의 禮部尚書가 王昉 趙胖에 달한 內容을 報告한 것은

너희 나라 사람에 尹彝 李初란 자가 있어 帝에게 와서 호소하여 말하기를 고려 李侍中(李成桂)이 瑠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으나 瑠는 宗室이 아니라 그 姻戚입니다. 瑠(공양왕)와 李(成桂)는 兵馬를 동원하여 장차 上國을 犯코자 꾀하였는데 宰相 李穡등이 不可하다고 하에 곧 李穡·曹敏修·李琳·邊安烈·權中和·張夏·李崇仁·權近·李種學 10人을 잡아 殺害하고 禹玄寶·禹仁烈·鄭地·金宗衍·尹有麟·洪仁桂·陳乙瑞·慶補·李仁敏 9人을 잡아 멀리 流配하니 그 貶所에 있는 宰相등이 가만히 우리들을 보내어 와서 天子께 告하나이다. 하고 인하여 親王(燕王)으로 天下의 兵을 勦員하여 와서 치게 하기를 청하였다 하면서 이에 葬初의 기록한 바 穡等의 성명을 내어 보이고 말하기를 메가 빨리 나라에 돌아가 王과 宰相에게 말하여 葬의 書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詰問하고 와서 報告하라 했습니다.²²⁾

라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그 名單 中에 실려 있던 사실을 비밀히 池湧奇로부터 이름이 실려 있어 위태하단 말을 듣고 金宗衍이 처벌을 받을까 저어 夜半도주하니 官에서는 全國에 수배 수색하여 鳳州 山中에서 잡아 巡軍獄에 가두고 臺省과 刑曹가 국문했으나 不服하고 다음날 밤에 便所 들창으로 뚫고 탈출하여 그 아들 伯鈞 孟鈞 仲鈞과 증 몇을 다리고 도망했다. 金宗衍이 安峽 人家에 숨어있는 것을 군사로 포위하니 도망하여 石窟中에 숨는것을 군사로 포위하니 칼매어 한군사를 치고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平壤으로 달아났다. 全國으로 수배했으나 잡지 못하고 西海道 谷州 숲속에서

22) 『高麗史』 卷第 45, 恭讓王 1, 元年五月癸巳朔條.

허기에 지쳐 村夫 한사람께 구원을 요청했다가 官에 告하여 巡軍鎮撫 任純禮를 보내어 잡아서 一晝夜에 300리를 달려 옥에 가두어 僂長壽 趙浚에 命하여 臺諫으로 더불어 국문케 하니 너무 허기짐이 심하고 피곤하고 얼어 拷問이 어려워 죽을 먹이고 뜨신 방에 넣었더니 죽고 말았다. 그러나 金宗衍 事件에 연루되어 많은 사람이 숙청되었다. 金宗衍이 平壤에 잡입하여 前判事 權忠의 집에 숨어 忠의 아들 進士 權格과 서로 친밀하고 모의했다. 權格을 체포하여 문초함으로서 金宗衍이 李侍中(成桂)은 본래 慈仁 하나 다만 鄭夢周 僂長壽 趙浚 鄭道傳 등이 유혹함으로서 사태가 이에 이르렀다 하고 門下侍中 沈德符·判三司 池湧奇·門下評理 朴葦·前判慈惠府事 鄭熙啓·同知密直 尹師德·全州道節制使 陳乙瑞·漢陽府尹 李彬·密直副使 陳原瑞·江陵道節制使 李沃·羅州道節制使 등과 모의하여 李成桂 鄭夢周 鄭道傳 僂長壽 趙浚 成石璘 등을 殺害할려 했다는 음모가 들어나게 되었다. 金宗衍은 支解하여 諸道에 돌리고 權忠 權格 父子 李芳春 金加勿 李天用 鄭甫 朴原實 등을 베고 判繕工事 趙裕를 絞殺하고 密直副使 曹彥 陳原瑞 朴可興 李仲和, 金軾을 流配하고 禹玄寶 李仲和 慶補 張夏 洪仁桂 尹有麟 등을 巡軍獄에 가두고 連累者 崔公哲 등 11人도 下獄되고 李穡 李琳 禹仁烈 李仁敏 鄭地 李崇仁 權近 李種學 李貴生 등을 淸州獄에 잡아 가두었다. 혹독한 拷問으로 인하여 尹有麟 崔公哲 洪仁桂는 獄死하자 모두 저자에 梟首했다. 曹彥 郭璇 金兆府 魏種 張翼을 下獄하고 杖100을 치 遠配하고 侍中 沈德符를 罷職 流配하고 池湧奇를 귀양보냈다. 이리하여 고려를 받들던 고려의 名流가 大量으로 肅淸 當했다. 이것이 有名한 彗初의 獄이었다.

이에 이르러 李成桂에 의하여 고려 王朝의 세력을 完全히 소탕했던 것이다. 그의 高麗 王室派에 대한 肅淸作業은 3段階에 걸쳐 進行되었다. 즉 제 1 단계는 威化島 回軍 쿠데타때 이며 第 2 段階는 廢假立眞때 이고 第 3 단계가 彗初의 獄이었다. 李成桂는 廢假立眞 9功臣의 元勳으로서 恭讓王元年 守門下侍中 익년 領三司事 門下侍中에 大拜되었고 공양왕 2년에 領八道軍馬, 都摠中外軍事, 三軍摠制使에 임명되었고 그의 黨與인 裒克廉은 中軍摠制使 鄭道傳은 右軍摠制使가 되었으니 軍國의 大權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그의 爪牙羽翼을 臺諫과 刑曹 憲司에 앉혀 그들로 하여금 反對派 즉 고려 忠臣들을 무자비하게 숙청케 했다. 恭讓王 3年 6월에 臺諫들이 서로 交章하여 彗初事件으로 流配되었다가 赦免되어 京師에 와 있던 禹玄寶를 귀양보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세번이나 上疏를 올려도 王은 모두 보류하고 判密直司事 李芳毅(李成桂의 세째 아들)을 李成桂의 집으로 보내어 臺諫의 璽封을 禁하도록 부탁했다. 아에 李成桂는 門下侍中의 사직서를 올리고 물러났다. 공양왕은 大驚失色하여 간절히 나오기를 권하고 不允하는 批答을 가지고 李成桂 집에 가서 賜했다.²³⁾ 그리고 할수없이 禹玄寶를 鐵原

23) 一國安危所係者重 大臣去就未可以輕 何曠節於戒盈 欲專身而求退 卿山川間氣 日月孤忠 仗義回軍 則國家再寧 正名定策則神人咸喜 及茲新造之際 煩卿篤柴之材 方將共政以致平 豈可托辭而規免 謗與則可以理遣 病革則當用醫治 不必釋位以閑居 乃能怡神而善保 既煩三讓 惟冀小安 이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에 流配 했다. 그러나 李成桂는 거듭 不仕하고 稱病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李成桂는 아들 芳遠을 보내어 國王께 辭職하기를

臣이 戊辰年에 義를 仗하고 軍을 들이켜 僞를 廢하고 眞을 세웠더니 이로 因하여 國人の 猜忌함을 입었고 또 昌을 세우고 禍를 맞이하려 尹彝 李初와 同謀한 사람들의 辭證이 이미 明白하여진 故로 臺諫이 스스로 上疏하여 罪를 請한 것입니다. 臣이 어찌 감히 指駭하였겠습니까. 이제 臣에게 命하여 臺諫을 禁止하라 하시니 이것은 臣을 指駭한 것으로 疑心함이 의다. 臣은 돌아보건대 不才함으로 大任에 當함이 마땅치 않사오니 마땅히 賢良을 가려 가들을 特록 하소서.²⁴⁾

했다. 李成桂는 매우 不快한 것이었다. 마치 자기가 臺諫을 배후에서 使駭한 것으로 指目한데 대한 반격이었다. 공양왕은 어쩔 줄을 몰랐다. 공양왕은 李芳遠에 말하기를

侍中의 辭狀에 진술한 바는 모두 나의 생각 밖에 것이로다.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王位에 있음은 侍中의 추대한 힘인 것이요 그러므로 侍中을 우러러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거늘 侍中은 어찌 나를 저버리려고 昌을 세우고 禍를 맞이하려 彝初와 同謀한 사람들로서 이미 前年에 의논하기를 情迹이 明白하지 아니한 것은 特赦토록 하였으며 侍中도 또한 그렇게 하였는데 이제 臺諫이 다시 特赦前의 일을 들어 罪를 請하는 까닭으로 卿으로 하여금 가서 侍中에게 告하여 만약 臺諫을 보거든 이 뜻으로써 타이르기를 請하였을 따름이다. 卿은 侍中에게 꾸어라 말하였기에 侍中이 굳이 辭退하고자 하는가. 만약에 侍中이 辭退하던 나도 또한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있겠소.²⁵⁾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가리켜 간절히 맹세했다. 國王은 李成桂의 사보타지에 전전긍긍했다. 그러다가 李成桂가 翌月에 나오니 王은 慰勞하기를 극진히했다. 국왕이 오히려 李成桂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李成桂가 國王께 말하길

人主一身 萬機所叢 應接之際 不可輕忽 然其要只在虛心正志 聽言納諫而已 殿下以此爲念 臣等亦以進賢退不肖爲任 期在共成治道耳.²⁶⁾

라 했다. 다시 年 9월에 立昌迎禍와 彝初의 獄에 關하여 臺諫과 刑曹에서 關聯者들을 論劾함에 공양왕은 鄭夢周 尹虎 柳曼殊 金漆를 불러 의논하여 李穡은 罪를 不問하고 曹敏修 邊安烈은 이미 죽었으므로 그 집을 籍沒하고 李乙珍은 律에 비취 斷罪하고 池湧奇 朴可興은 流配를 풀지 않고 禹仁烈 王安德 朴葦는 外方에 便住시키고 그 外의 者는 모두 京外에 便住시키기로 決定했다. 高麗의 運命은 날로 기울고 李成桂의 세력은 날로 커가고 또 李成桂派의 지나친 高麗派의 肅清에 우려 분개한 鄭夢周는 이를 契機로 李成桂의 陣營에서 떨어져 나와 등을 돌리고 말았다. 鄭夢周가 李成桂와 굳은 악수를하고 廢假立眞을 斷行하고 李成桂의 同志가 된다는 그나름대로 이 王朝를 回天코저 한 그 나름대로의 愛國愛民의 衷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李成桂파가 무고한

24) 『高麗史世家』卷第 46, 恭讓王 2, 3年條.

25) 上揭書.

26) 上揭書.

고려의 舊臣을 잔인하게 숙청하는데 크게 반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恭讓王과 高麗의 社稷을 守護하기 위하여 敢然히 李成桂派에 대항했다. 이로써 李成桂와의 그칠줄 모르는 高麗王室派의 彈劾 肅清作業에 썩기를 박았다. 鄭夢周는 공양왕께 건의하여 수 후에 다시 論劾하면 誣告로써 論하겠다는 斷乎한 명령을 내렸다.

4. 高麗의 篡奪과 鄭夢周의 丹忠

滔滔한 朝鮮 革命의 물결을 막아 불려고 노력한 마지막의 巨木이 鄭夢周였다. 그는 字를 達可 號를 圃隱이라한 麗末의 名儒로 文科에 壯元한 후 이후 成均館 博士 司藝 直講 司成 大司成을 歷任하면서 性理學을 講義하여 性理學을 海東에 倡明하는데 偉功을 세워 一世 名講 碩學으로 이름 높아 海東理學之祖의 칭을 들었다. 進賢館, 實文閣 藝文館提學에 禮儀 典法 版圖判書를 역임 助戰元帥가되어 李成桂 휘하에서 倭寇 토벌에 공을 세웠다. 外交에 卓絶한 공을 세워 日本에 使臣가서 倭寇의 금지를 확약 받고 잡려간 고려인 수백명을 송환했으며 明나라에 두번이나 使臣가서 歲貢 삭감과 對明 外交에 偉功을 세웠다. 1390년 藝文館大提學 門下贊成事로서 恭讓王을 옹립하는데 李成桂와 同謀協力하여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 判都評議使司 兵曹尚瑞寺事 領景靈殿事 右文館大提學 益陽郡忠義伯이 되었다. 當代 武의 李成桂에 어깨를 겨누는 文의 雄傑이었다. 처음은 줄곧 李成桂와 함께 理念과 政治路線을 함께 해왔다. 親明派의 兩大巨壁이기도했다. 그러나 恭讓王 옹립 이후 李成桂의 篡奪 陰謀를 간파하고는 李成桂와 갈라져 高麗를 위하여 李成桂와 敵對하게 되었다.²⁷⁾ 매마칠 공양왕 4年 3월에 前年에 明에 갔던 世子 奭이 歸國하자 國王은 王弟 瑀와 李成桂로 하여금 黃州에 가서 世子를 영접케 했다. 그러나 李成桂는 途中 海州에서 사냥을 하다가 落馬하여 중상을 입고 병석에 눕게 되는 不幸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소식이 開城에 보고되었다. 이에 守門下侍中 鄭夢周는 기뻐하고 이 機會를 이용하여 李成桂를 숙청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재빨리 鄭夢周는 그의 門人이요 心腹인 諫言 金震陽 李攢 李來 李敢 權弘 柳沂등에 지시하여 李成桂의 羽翼이던 三司左使 趙浚 政堂文學 鄭道傳 前密直副使 南閭 前判書 尹紹宗 前判書 南在 淸州牧使 趙瑋등을 탄핵했다. 「이들은 참소로 죄를 얻어 만들어 많은 사람을 무고히 연좌시켰고, 권세를 희롱하여 여러 사람을 꺾고 협박하고 벼슬을 잃을까 걱정하는 염치 없는 무리와 그 뜻에 영합하여 일을 일으키려는 무리들이 호응하여 일어 나서 이들은 난을 선동하는 羽翼이 되어 말을 꾸며내는 목구멍과 혀가되어 서로 부르고 화답하여 죄의 그물을 널리 펼쳐서 형벌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쓰고 본래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니 여러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 하여 모두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으며, 다시 몰래 羽翼이 되고 喉舌이 되는 무리

27) 抽稿, 「鄭夢周 殉節處의 新考察」『大丘史學』15, 16合輯 참조.

들과 함께 모여서 無時로 모의하니 신등은 그들이 반드시 도모함을 이루지 못한 원한이 있어서 불충한 의논이 생기게 될것을 매우 두려워하오니 일찍 이를 도모하여 그세력이 성하지 못하게 함과 같지 못합니다. 그 마음 쓰고 간악한것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고석적으로 하고 이를 결단하지 않으시면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원망할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말은 官司로 하여금 趙浚 南閔 南在 尹紹宗 趙璞등의 직첩과 공신 錄券을 회수하고 그 罪를 국문하여 형벌을 밝게 다스리고 鄭道傳은 귀양간 곳에서 처단하여 뒷 사람을 경계할 것입니다』고 上疏했다.²⁸⁾ 疏가 들어가자 두려워 이것을 안에 두었다가 諸諫官이 간곡하고 강력한 伏閣上疏를 하는 통에 겨우 조정에 내놓았다. 이와 같이 李成桂派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를 知 申事 李詹이 王께 진달하였다. 그리하여 趙浚은 遠配하고 南閔 尹紹宗 南在 趙璞의 官職을 削奪하고 遠配하고 鄭道傳은 귀양지인 奉化에서 甫州에 잡아다가 가두었다. 또 司憲府에서 李成桂파인 判典校寺事 吳思忠을 탄핵하여 削奪官職하여 遠配했다. 門下省의 郎舍에서 또 疏를 올려 趙浚 鄭道傳 南閔傳등을 極刑에 處하여 배도록 청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공양왕은 大驚失色하며 不可타하고 국문케 만했다. 이때 공양왕은 재빨리 이성계의 手足들을 처형했더라면 그렇게 빨리 고려가 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공양왕도 죽음을 면하였을 것이다. 이점 申象村도 통분해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리하여 李成桂의 羽翼爪牙는 숙청되었다. 李成桂一派의 完全 沒落과 李成桂 自身の 운명도 급박했다. 鄭夢周는 李成桂 타도의 사슬을 늦추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급박한 위기를 맞아 李芳遠은 급히 李成桂에 달려가 鄭夢周가 기필코 우리집을 무너뜨릴려 한다』고 꾀하여 碧瀾渡에서 유숙할려던 계획을 취소하여 重懲의 李將軍을 밤새워 교군에 태워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 외에 重傷으로 기동을 못할 줄 안 李將軍이 재빨리 開京으로 돌아오자 李成桂派 除去作業이 실패로 돌아갈것 같아 정몽주는 3日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을 했으며 아연실색 경황망조 했다한다.

李芳遠은 父親인 李成桂에게 事態의 급박을 알리며 鄭夢周를 기습살해할 계획을 의논하니 李成桂는 死生이 命이 있으니 다만 마땅히 順受할 뿐이라』했다. 芳遠은 叔父인 判懿德府事 李和의 婿인 前密直副使 李濟와 李芳果 그의 참모들과 謀議하여 判典客寺事趙英珪等麾下軍士를 모아놓고 「李氏가 王室에 충성한 사실은 國人이 다 아는 것인데 지금 鄭夢周의 모함으로 惡名까지 덮어 쓰게 되니 後世에 누가 능히 알겠느냐 麾下에 많은 장사가 있어도 어느 한 사람도 李氏를 위하여 충성할 사람이 없구나』고 하며 鄭夢周 除去계획을 진행했다. 이에 趙英珪는 慨然히 盡力하겠다했다. 芳遠은 趙英珪에게 海州牧使 趙英茂 中郎將高呂 判軍器寺事 李敷등에 命하여 鄭夢周를 都評議使

28) 『高麗史』 卷 117, 列傳第 30, 金震陽傳.

司에 들어가서 죽이도록 했다. 그런데 별안간에 정몽주가 문에 당도했던 것이다. 이것은 암살계획을 李元桂(이성계兄)의 사위인 卞仲良이 鄭夢周에 밀고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鄭夢周는事態의 심각함을 깨닫고 李成桂의 病勢 정도와 동정을 살피고자 病 위문을 구실로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갔던 것이다. 太祖는 自己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정몽주를 아무것도 모르는양 평상시 처럼 대했다. 이 때 李和와 芳遠에 말하기를 정몽주를 제거할 때는 이 때라고 말하며 다만 李成桂가 노하실까 두렵다고 했다. 芳遠은 말하길 「기회는 능칠 수 없다. 太祖의 노여움은 내가 大義로 달쭈 드려 풀도록 할것이다.」하고 路上에서 격살하기로 계획했다. 芳遠이 趙英珪에게 다시 명령하여 芳果 집에 가서 劒을 가지고 가서 鄭夢周 거주 洞口에서 대기케 했다가 살해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정몽주는 문병하고 즉시 나왔다. 이에 장사들이 암살장소에 미쳐 도착도 못했을것을 생각하여 芳遠은 일이 실패할것을 저어했다. 그래서 芳遠이 직접 진두 지휘하여 路上에서 살해하려고 무장하고 나갔다. 그래서 芳果 집에 이르러 정몽주가 지나갔느냐고 물으니 아직 지나 가지 않았단다. 그 때 정몽주는 判開城府事 柳源의 喪問을 하고 오느라고 늦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저격조가 정몽주 동리 동구에 매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정몽주가 말을 타고 귀가함에 대기했던 趙英珪가 숨겨졌으나 칼이 맞지 않았다. 그때 정몽주는 趙英珪를 보고 고함을 치며 크게 꾸짖고 막 말을 달렸다. 趙英珪가 다시 말을 타고 추격하여 정몽주의 말 머리를 치니 말이 커꾸러지자 정몽주가 땅에 떨어져 필사의 탈주를 했다. 이에 高麗 등이 추격하여 살해했던 것이다.²⁹⁾ 이에 高麗를 마지막 어깨에 메고 있던 巨木은 선혈을 흘리며 쓰러졌던 것이다. 이로써 萬古의 忠臣은 고려를 위해 殉國했다. 때에 春秋 56세였다. 아들 芳遠이 저지른 大事에 놀란 李成桂는 한편으로는 芳遠을 책망하고는 곧 黃希碩을 왕제 보내어 「鄭夢周 등이 罪人을 黨庇하여 가만히 臺諫을 꺾어 忠良을 誣陷하다가 지금 이미 伏罪하였다고 아뢰었고, 李成桂 革命派에 의하여 斬首되어 저자에 梟示되어 處刑의 罪目을 다음과 같이 내 걸었다.

梟夢周首于 市揭曰飾虛事 謀害大臣 擾亂國家.³⁰⁾

라는 文字가 市街에 내건 忠臣 鄭夢周의 罪名이었다. 이것은 고려를 찬탈하려는 李成桂 革命派가 고려를 마지막으로 붙들어 세울려는 忠臣에 내건 죄목이었다. 그리고 그의 집을 籍沒하였다. 恭讓王 4年丁酉年에 司憲府兼大司憲 閔開等の 上疏에

鄭夢周本係庸人 開國伯以爲達古書生 屢加薦引 代以己任 夢周貪饕富貴 恣行貨賄 抗直忤己者 一皆斥去 阿諛諂己者 布列朝廷 無欲不遂 猶以爲不得縱情逞欲忌憚……誘臺諫而論議 假

29) 『龍飛御天歌』卷 2.
『太祖實錄』卷 1 總書.
『朝鮮王朝實錄』

30) 『高麗史』卷之 117, 列傳卷第 30, 「鄭夢周傳」.

之極刑 將及於開國伯 欲以專權自恣植營 謀亂萬一得成 其計尊擅國柄云云.³¹⁾

이라고 혹평했다. 그것은 조선 혁명파들이 그들의 혁명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비열한 증상모락이었다.

高麗의 마지막 支柱 鄭守侍中이 暗殺되자 고려의 운명도 鄭夢周와 함께 하게 되었다. 李成桂는 李成桂가 黃希碩을 공양왕께 보낼제 黃은 두려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쳐다 볼 뿐이었다. 鄭夢周의 殺害를 감히 말하기 어려웠고 또 李成桂의 下命대로 趙浚 南閔 등을 소환하여 臺諫과 對質 辨解토록하길 王께 보고케했다. 그러나 黃希諫이 머뭇거리자 李濟가 옆에 있다가 큰소리로 꾸짖으니 비로소 궁궐에 나아가 鄭夢周의 殺害와 臺諫의 비행을 보고했다. 恭讓王은 말하길 「臺諫을 그들 彈劾을 받은 자들과 對辨케 할 수 없다. 내가 장차 臺諫을 밖으로 내 쫓을 터이니 卿等은 다시는 말하지 말라」³²⁾ 했다. 이때 李成桂는 怒했기 때문에 病이 惡化되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에 李芳遠은 事態가 급한지라 李芳果와 李和 李濟와 의논하여 定宗을 恭讓王께 보내어 말하길 만약 鄭夢周의 黨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청컨대 우리들에 罪를 주옵시라고 협박했다. 그래서 공양왕은 부득이 臺諫을 巡軍獄에 下獄했다. 그리고 外地에 流配할 것이며 꼭 鞫問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判三司事 裴克廉 門下評理 金湊 同巡軍提調 金士衡等에 국문케했다. 이에 左常侍 金震陽이 말하길 鄭夢周 李穡 禹玄寶가 李崇仁 李種學 趙瑚를 보내어 臣等에 말하길 判門下 李成桂가 功을 믿고 정권을 마음대로하니 지금 말에서 떨어져 病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 羽翼인 趙浚等을 자르고 난 연후에 이 성계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을 自白했다. 이에 李成桂의 압력에 의하여 李崇仁 李種學 趙瑚를 巡軍獄에 가두었다. 李成桂派들은 鄭夢周와 함께 고려왕실을 일으킬 러던 고려왕실파요 경몽주의 동지이던 左常侍 金震陽 右常侍 李攢 右諫議 李來 左獻納 李政 右獻納 權弘 司憲執義 鄭熙 掌令 金畝 徐甄 持平 李作 李申 李崇仁 李種學등을 遠地에 流配하고는 이들을 斬하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太祖가 단류하여 이들은 죽음을 면했다.

事態는 急轉直下했고 政局은 바뀌게 되었다. 전번에 李成桂의 重傷時 鄭夢周 李穡 禹玄寶 金震陽등에 의하여 숙정되어 流配되어 死刑이 임박하던 李成桂派의 參謀들인 趙浚 鄭道傳 南閔 尹紹宗 南在 趙璞등이 放免되어 召還 되었다. 李成桂가 門下侍中이 되고 裴克廉이 守門下侍中에 임명되고 趙浚 柳曼殊가 門下贊成事에 偃長壽가 判三司事에 沈德符가 判門下府事 李元紘을 政黨文學에 鄭熙啓를 判開城府事에 閔霽를 開城尹에 李芳遠을 密直提學 李行 趙仁沃을 吏曹判書 李勲 柳亮을 戶曹判書 李稷을 刑曹判書 李元紘 金士衡을 三司左右使에 李豆蘭을 知門下府事에 李芳果를 密直司事에 趙珪를 密直副使에 尹師德을 知密直司事·閔開를 兼大司憲 李廷堅 金子粹를 左右常侍

31) 『高麗史世家』卷 46, 恭讓王 2.4年 條.

32)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 總書」

崔云嗣 李文和를 左右司議 權總을 司憲執義 朴貫 柳珣을 掌令 宋因 全順을 左右獻納 鄭擢 金陞을 持平 安璵을 知申事 安景恭 朴錫命을 左右代言에 金希善을 左右常侍 趙瑛을 三司右尹 金若恒을 司憲執義 李興을 持平 崔宏을 右正言에 임명했다. 李成桂派 一色의 李政權이 탄생되었다.

李成桂派는 知申事 李詹을 結成에 右副代言 李士穎을 南原에 流配하고 池湧奇는 貶所에서 죽었고 李穡을 韓州에 追放하고 李崇仁 趙瑚 李種學 李種善 金震陽 李擴을 廢하여 庶人을 삼았다. 姜淮伯과 柳沂을 外方으로 流配하고 慶尙道 按廉使 崔咸을 罷免하고 左司議 崔云嗣로 代替했다. 곧이어 判三司事 禹玄寶와 宗室 南平君 和와 壽延君 珪·寧原君 珪·益山君 叙·福原君 諡·順寧君 聃·保寧君 福 宦者 姜仁富 柳曼殊등을 遠地에 流配하고 倭長壽 金履를 削奪官職하여 遠地에 流配했다. 禹玄寶의 子인 禹洪富 禹洪壽를 削奪官職하여 遠配하고 永遠히 叙用치 못하게 하고 金震陽을 杖 100을 쳐 遠方에 移配하고 李成桂派의 爪牙인 趙浚을 京畿左右道節制使·南閭을 慶尙道節制에 임명하여 各道の 節制使를 李成桂派 一色으로 하고 道の 兵馬權을 장악했다. 司憲府 兼 大司憲 閔開등이 上疏하여 말하기를 開國伯 李成桂를 찬양하고 鄭夢周등 고려의 忠臣들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 恭讓王의 지위는 다 쓰러져가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고 가련했다. 王은 李成桂 집에 行幸하여 問病하고 酒宴을 벌리고 말하기를 「내 비록 厚하게 報答함은 없어도 어찌 德을 잊음에 이르리요」하고 눈물을 지었고 歡飲하고 宴이 罷함에 악기를 李成桂에 주면서 「病中에 可히 耳目을 기를것이며 속히 치료하여 과인을 위하여 나와서 일을 보도록 하시오」라고 간곡히 말했다. 國王이 李成桂에 아부하기 바랐다. 한달이 못가서 王은 李芳遠과 司藝 趙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장차 李侍中으로 더불어 同盟코자 하니 卿등은 나의 말을 侍中에게 傳하고 侍中の 말을 들어 盟書를 草하여 오도록 하라. 반드시 故事가 있을 것이요」라고 했다. 趙庸이 아뢰기를 「盟誓는 足히 貴한것이 아니므로 聖人이 싫어한 바입니다. 列國間에 同盟 같은 옛날에는 있었으나 君臣間의 同盟은 經籍과 故事에 可據할 것이 없사옵니다」고 했다. 王은 「어쨌든 草하여 오라」했다. 얼마나 不安했으면 王이 이렇게 나왔겠는가 알만 하다. 李芳遠과 趙庸이 李成桂에 가서 王의 敎를 傳했더니 李成桂는 「내가 무슨말을 하겠느냐 네가 마땅히 下敎데로 起草하라했다. 그들이 草하여 올린 盟約文은 다음과 같다.

不有卿予焉至此 卿之功與德 予敢忘諸 皇天后土在上在旁 世世子孫無相害也 予所有負於卿者 有如此盟.³³⁾

라고 草해 올리니 王이 좋다고 했다. 王이 北泉洞宮에서 李成桂의 집으로 幸行하여 酒宴을 베풀고 同盟式을 거행하려고 의장대가 도열하고 百官이 차례로 정열하여 나아

33) 『高麗史』 世家卷第 46, 恭讓王 2, 4年條.

갔다. 그러나 공양왕의 同盟이 진행되는 동안 李成桂와는 부정하게도 냉혹히 篡奪革命을 진행하고 있었다. 同盟式이 준비되는 동안 右侍中 裒克廉등 李成桂派가 王大妃(恭愍王定妃)에 나아가 아뢰기를

今王은 昏暗하여 君道를 이미 잃고 人心이 이미 떠났으니 社稷과 生靈의 主가 될 수 없나이다. 請컨대 廢하소서.³⁴⁾

하고 옥락지르메 妃의 敎를 받들어 공양왕을 廢하기에 이르렀다. 同知密直 南閭이 門下評理 鄭熙啓와 함께 大妃의 敎旨를 가지고 北泉洞 時坐宮에 이르러 右代言 韓尚敬이 宣敎 奉讀하니 恭讓王은 俯伏하여 聽命하였다. 王은 말하길 「내 본데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羣臣이 나를 억지로 세웠도다. 내 性이 不敏하여 國政을 잘 보살피지 못하니 어찌 臣下들이 탐탁하게 여김이 없지 않았겠소」하며 울었다.³⁵⁾ 그리고는 또 獻納 宋因으로 하여금 뜰에 내려 임계하여 百司를 曉諭하였다. 恭讓王은 妃 世子嬪과 함께 原州로 追放되고 이어 杆城으로 옮기고 恭讓君에 封해졌다. 王은 3年 뒤에 三陟府에서 太祖가 派遣한 中樞院副使 鄭南晉 刑曹議郎 咸傅林에 의하여 王命으로 그 其子과 함께 絞殺되어³⁶⁾ 한 많은 生을 마쳤다. 王은 在位 4年 50세로 薨하였다. 뿐만 아니라 刑曹典書 尹邦慶 大將軍 吳蒙乙을 江華島에 刑曹典書 孫興宗 僉節制使 沈孝生을 巨濟島에 보내어 安置시켰던 王氏를 모두 바다에 던져 물살시켰다.³⁷⁾ 百官이 國璽를 받들러 王大妃殿에 두고 庶務를 就稟裁決케 했다. 大妃는 곧 李成桂에 監錄國事를 宣敎했다.

이어서 李成桂는 受權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版圖를 구성하니 都堂에서 諸道에 移牒하여 前月에 外方에 流配된者(고려의 王室扶持세력)는 모두 獄에 가두고 決罪를 기다리게 명령했다. 李成桂派는 丹陽君 禹成範과 晉原君 姜淮季를 會賓門밖에서 斬하였고 贊成事 成石璘 政堂文學 李元紘 青城君 姜著 藝文館大提學 韓蕝 密直提學 成石塔 前密直 柳惠孫 軍資尹 姜淮仲 開城少尹 柳珣 繕工副令 金允壽 護軍 姜餘를 流配시켰다. 이리하여 고려 王室派는 原任時任 가릴것없이 罔그리 숙청되었다.

드디어 고려 최후의 날이요 朝鮮 開國의 날은 각본대로 오고야 말았다. 139年 7月 17日 裒克廉 趙浚 鄭道傳 金士衡 李濟 李和 鄭熙啓 李之蘭 南閭 張思吉 鄭摠 金仁贊 趙仁沃 南在 趙瑛 吳蒙乙 鄭擢 尹虎 李敏道 趙狷 朴苞 趙英珪 趙胖 趙溫 趙琦 洪吉攷 劉敬 鄭龍壽 張湛 安景恭 金稱 柳爰廷 李稷 李懃 吳思忠 李舒 趙英茂 李伯由 李敷 金

34) 上揭書,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卷一總書.

35)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卷一元年秋 7月條.

36) 『朝鮮王朝實錄』 卷 5. 三年 甲戌 4月 癸未條에 臣民推戴 以予爲君 實惟天數 令君就居關東 其餘同姓 各歸便處 保安生業 今東來縣令金可行 鹽場官朴仲質等 欲圖不軌 以君及親屬之命 卜於盲人李興茂事覺伏罪 君雖不知 事至如此 臺諫法官 連章上請 至于十二次 累日固爭 大小臣僚 又上書爭之 予不獲已 勉從其請 君其知悉 遂絞之 及其二子.

37) 上揭書.

輅 孫興宗 沈孝生 高呂 張至和 咸傳霖 韓尚敬 黃居正 任彥忠 張思靖 閔汝翼等이 大小 臣僚와 閑良 耆老를 거느리고 國寶를 받들고 李成桂邸로 갔다. 李成桂에 國寶를 바치고 即位를 勸했다. 李成桂는 각본에 의하여 李天佑를 붙들고 나와서 사양했다. 그러나 百官은 일제히 羅拜하고 복을치면서 萬歲를 불렀다. 1392年(공양왕 4년) 7월 17日 丙申에 李成桂는 百官의 班迎裡에 壽昌宮으로 가서 即位했다.³⁸⁾ 그리고 羣臣의 朝賀를 받았다. 이로써 고려는 멸망하고 말았다. 고려는 34代 475年만에 終焉을 告하고 말았다.

百官 中에서 大司憲 閔開는 기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채 아무 말도 않아 南闔이 擊殺코자 했으나 太祖가 간곡히 말려 무사했다. 이로써 볼 때 李成桂派가 얼마나 用意周到하게 無慈悲하게 革命을 進行시켰던가를 짐작할만하다. 그들은 開國後에도 太祖 3年 5月에는 全國에 명령을 내려 王氏의 大大的인 수색을 벌려 王氏라고는 전부 전멸시켰다.³⁹⁾ 이것은 王建太祖의 民族融和政策과 포용책과 對比하여 너무도 철두철미 무자비했고, 혁명수행은 완벽했다.

老衰하고 부패된 고려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理想的인 儒敎國家를 건설하여 人民과 民族과 國家의 安寧 秩序와 번영을 위하여 李成桂란 救國의 英雄을 추대하여 희망에 찬 새 國家를 창건하고 革舊改革한 세력 즉 朝鮮 革命 세력 李成桂파는 새王朝 開國의 환희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이들에 영광된 功臣號와 官爵이 주어졌다. 이들 同謀推戴에 功이 있는 이들 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은

一等 15人

益安大君李芳毅·星山伯 裒克廉·平壤伯 趙浚·上洛伯 金士衡·興安君 李濟·義安大君 李和·鄭熙啓·青海伯 李之蘭·宣城君 南闔·花山府院君 張思吉·西原君 鄭摠·漢山君 趙仁沃·宜寧府院君 南在·清城府院君 鄭擢·益和君 金仁贊.

二等 9人

坡平君 尹虎·商山君 李敏道·戶曹典書 趙英珪·復興君 趙胖·漢川府院君 趙溫·南陽君 洪吉叟·玉川府院君 劉敏·平城府院君 趙翊·平海君 黃希碩.

三等 15人

興寧府院君 安景恭·雞林君 金穰·中樞院副使 柳爰廷·星山府院君 李稷·寧城府院君 吳思忠·安平府院君 李舒·漢山府院君 趙英茂·完城府院君 李伯由·興原君 李敷·延城君 金輅·高城府院君 高呂·東原君 咸傳霖·西原府院君 韓尚敬·上將軍 韓忠·驪川府院君 閔汝翼.⁴⁰⁾

이 사람들이 李成桂派의 極烈分子들로서 朝鮮 建國에 樹勳한 者들이었다.

李成桂가 太祖로 即位後 鄭道傳이 지은 敎書에

有司上言 禹玄寶 李穡 僕長壽等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宜置於法 以戒後

38) 『朝鮮王朝實錄』卷 第一, 太祖元年 壬申 7月 17日丙申條.

39) 『朝鮮王朝實錄』卷 第 5, 三年 甲戌 4月己丑條.

40) 清選考.

來 予尚憫之 俾保首領⁴¹⁾

라한 禹玄寶 李穡 僕長壽等 56인이 李成桂의 開國功臣들과 싸워 高麗를 回天시키려던 高麗의 遺臣이요 忠臣들이 었다. 敎書에 적은 名單을 보면

一. 禹玄寶 李穡 僕長壽

收其職貼 廢爲庶人 徙諸海上 終身不齒

二. 禹洪壽 姜淮伯 李崇仁 趙瑚 金震陽 李擴 李種學 禹洪得

收其職貼 決杖一百 流于遐方

三. 崔乙義 朴興澤 金履 李來 金訥 李種善 禹洪康 徐甄 禹洪命 金瞻 許膺 柳珣 李作 李申

安魯生 權弘 崔成 李政 崔開 李士穎 柳沂 李詹 禹洪富 康餘 金允壽

收其職貼 決杖七十 流于遐方

四. 金南得 姜著 李乙珍 柳廷顯 鄭寓 鄭過 鄭蹈 姜仁甫 安俊 李堂 李室

收其職貼 放置遐方

五. 成石璘 李允紘 柳惠孫 安瑗 姜淮中 申允弼 成石琰 金五倫 鄭熙

各於本鄉安置

한 이들이 그동안 끊임 없는 숙청으로 인하여 李成桂派에 의하여 殺害되고 남은 고 려 遺臣들의 마지막 숙청이었다. 이들중 8인은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Ⅲ. 節 義 派

李 穡

字는 穎叔 號는 牧隱 本貫은 韓山 元나라의 科擧에 壯元한 天才로 官이 三重大匡 門下侍中 韓山君에 이르렀다. 性理學의 名儒로 學統을 益齋에 受學하여 門戶를 크게 열어 麗末 性理學의 文運을 크게 열었다. 1367年 成均館大司成이 되어 鄭夢周 李崇仁 등 一世의 名儒를 모아 性理學을 크게 倡明했다. 李成桂가 回軍하여 禡王을 폐하여 쫓아 내자 그子 昌王을 曹敏修와 손잡고 응립하고 判門下府事가 되어서는 李成桂一派의 證證하는 강대한 세력을 견제하려고 明나라에 使臣으로 가서 昌王의 入朝와 明나라의 高麗 監國을 주청했으며, 李成桂派에 끝없는 迫害를 받아 長湍에 流配되고 다시 咸昌으로 移配되고 葬初의 獄에 連累되어 淸州의 獄에 수감되었다가 洪水의 變亂으로 咸昌에 安置되었다가 다시 1392(공양왕 4) 衿州로 추방되었고 驪興 長興등지로 流配되다가 1395(太祖 4)년 석방되어 驪江으로 가는 도중에 暴死했다. 世間에서는 李芳遠의 密使에 의하여 暗殺되었다는 說이 있다.⁴²⁾ 공은 끝까지 高麗王朝를 위하여 節義를

41) 『朝鮮王朝實錄』卷一, 元年壬申七月丁未條.

42) 李肯翊, 『燃藜室記述』卷一.

지키고 李成桂派에 대항하여 고려를 回天시킬려다 자식을 희생시키고 그마저 殉節한 偉대한 忠臣이다. 文章에 있어 高麗를 代表하는 文豪요 碩學으로 李朝의 文學과 性理學의 淵源이 되었다.⁴³⁾

太祖가 등극후 옛 友情으로 공을 부르니 공은 友情에 응했다. 가서는 음만 하고는 절을 하지 않고 대조가 환영하고는 용상에 앉으니 목은은 말하길 「나는 앉일 곳이 없소이다」하고 일어나서 돌아 서니 太祖가 「원컨데 가르침을 받들겠으니 덕이 적고 우매하다고 버리지 마오」하니 목은이 「亡國의 大夫는 보존하기를 도모하지 아니하오 다만 마땅히 나의 해골을 가져다가 故山에 묻을 뿐이오」하고 나와 돌아왔다. 그는 君臣의 禮를 행하지 않고 君臣간을 인정하지 않고 물러가는 泰山 같은 節義에 李太祖도 손을 쓰지 못했다.⁴⁴⁾ 그는 偉대한 忠臣이다.

李 崇 仁

字는 子安이며 호는 陶隱이요 本官은 京山(星州)이다. 麗末에 崛起한 名門의 出身으로 文忠公 樵隱 李仁復의 家門에서 자라 牧隱의 門下에서 受學하여 大成한 巨儒요 麗末에 公의 師傅 牧隱과 并稱되는 文豪였다. 牧隱 밑에서 成均館 名講으로 圃隱과 并稱되고 性理學에 造詣가 깊어 當代의 巨擘으로 추앙되고 官이 簽書密直司事 同知春秋館事 藝文館提學에 이르렀으며 牧隱 圃隱과 함께 三隱으로 일컬는다. 목은과 함께 기우는 高麗를 扶持하여 中興 시킬려고 明나라에 使臣도 다녀오고 昌王을 받들다 李成桂 革命派에 의하여 갖인 迫害를 받아 各地에 流配되었다. 1390年(공양왕 2)에는 舜初의 獄事에 連坐되어 淸州獄에 갇혔었다. 이때 淸州 獄에는 牧隱을 위시하여 고려 忠臣 30인을 수감하여 장차 준엄한 고문으로 治罪할려 함에 홀연히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에서 大雨가 쏟아져 온 천지가 물 바다가 되어 官衙가 모두 水沒하고 問事官이 나무에 올라 간신히 水災를 면함에 공을 위시하여 30인이 모두 풀려 나왔다. 이를 두고 當世에는 忠臣을 하늘이 알아주어 하늘이 구해주었다고 했다. 다시 1392년(공양왕 4년) 鄭夢周가 殺害된후 그의 一黨이라 하여 順天으로 流配되었다. 李崇仁의 굵직한 줄 모르는 忠節과 當世 第一의 文과 學을 미워한 鄭道傳과 南閭의 지시를 받은 體覆使 黃居正이 南平에서 公의 허리를 매길하여 죽지 않으므로 말 위에 가로 실어 말을 달리게 하여 이웃 고을에 이르러 참혹하게 죽게했다. 이로서 高麗第一의 文豪요 性理學者요 史官이요 忠節臣이던 陶隱公은 鄭道傳이 公이 귀양간 嶺南에 方伯으로 밀명 파견한 黃居正에 의하여 하루 안에 곤장 수백대를 때려 말위에 실어 수백리를 달려 상처가 짓물러 殉死케했다. 公의 죽음을 애석히 여긴 門人 太宗大王이 死因을 조사 명령하여 黃巨正을 巡禁司에 가두고 太宗이 크게 怒하여 「崇仁의 文章과 德望을 내가 생각

43) 『高麗史』 卷之 115, 列傳卷第 28, 李穡傳.

44) 李肯翹, 前揭書.

慕해 오며 그가 일찍 죽은 것을 슬퍼하였더니 과연 이놈의 소행이었구나」하고 太宗의 엄명에 의해 謀殺人罪를 적용하여 宰相이던 黃居正을 勳爵을 삭제하고 廢庶人하고 子孫을 禁錮케 하고 멀리 귀양 보내어 죽게했다. 天道는 무심치 않았다. 「居正…道傳이 입은 禍는 崇仁 보다 더 참혹하고 崇仁의 이름은 後世에 빛났다. 天道는 헛됨이 없다」⁴⁵⁾고 申欽은 말했다.

鄭道傳과 李崇仁은 같은 嶺南 出身에 牧隱 門下의 同門生으로 처음은 親密한 친구였으나 理念과 路線이 갈라져 서로 仇讐가 되었다. 더욱 牧隱이 陶隱을 酷愛하자 거기에 不平이 삭뒀던 것이다. 高麗末에 綺羅星 처럼 빛난 忠節臣 中에서도 始終一貫한 高麗王室을 위한 忠誠節義에서 그의 高邁한 學德 文章에서 論之할 때 그의 不掘의 丹忠과 劇的인 참혹한 殉節에서 볼 때 고려 第一의 忠節은 陶隱을 推舉하는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⁴⁶⁾

禹 洪 壽

禹玄寶의 長子 文科에 及第하여 成均博士 知申事 大司憲을 거쳐 昌王時에 簽書密直司事에 임명되었다. 때에 金訥의 獄事에 연루되어 流配되고 1391年 다시 기용되어 同知密直司事로 있다가 1392년 고려 충신들과 함께 順天에 流配되었다가 杖殺되었다. 때에 나이 39세였다. 이와 같이 엄청난 살육의 뒤에는 원한에 찬 사연이 있었다. 지난날 禹玄寶의 族人에 金訥이란 이가 있었다. 그가 일찍 중이되어서는 그의 종인 樹伊의 치와 몰래 간통하여 한 딸을 낳았다. 金訥의 친척들은 모두 樹伊의 딸이라 말하고 알았으나 金訥 만은 자기 딸이라 했다. 그래서 남 몰래 사랑하고 돌보았다. 훗날 金訥이 還俗해서는 樹伊의 아내를 빼앗아 제 아내로 삼았다. 딸이 성장하여선 士人 禹延에게 시집보내고 奴婢와 田宅을 다 주었다. 禹延이 한 딸을 낳아 貢生 鄭云敬에 시집 보냈다. 鄭云敬이 벼슬이 刑部尚書에 이르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맏이가 鄭道傳이었다. 정도전이 벼슬 길에 나아가게 되니 禹玄寶의 子弟들이 모두 털시했으며 매양 벼슬을 옮길 때 마다 臺省에서 告身에 署名치 안해주었다. 그래서 鄭道傳은 禹玄寶의 子弟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일찍 부터 憤怒를 품어왔다. 恭讓王이 즉위해서는 禹洪壽의 아들 禹成範이 駙馬가 되자 道傳은 禹成範등이 세력을 이용하여 그 근본을 파헤칠까 두려워서 禹玄寶 一門을 가진 수단으로 증상모략했다. 朝鮮이 開國되자 禹成範을 죽이고 禹玄寶父子를 죽이고저 계략을 꾸밀제 趙浚이 李穡 李崇仁과 사이가 나쁜 때문에 李穡 李種學 李崇仁 禹玄寶등 10여인을 極刑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太祖의 만류로 決杖有差토록했다. 그런데 鄭道傳 南閔등이 비밀히 黃居正을 시

45) 申欽, 前揭書.
李肯翹, 前揭書.

46) 拙稿, 「麗末性理學派의 形成」, 『東洋文化』 7輯, 慶北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켜 杖 100을 쳐 禹洪壽 禹洪命 禹洪得 3兄弟를 죽게했다.⁴⁷⁾

禹 洪 得

禹玄寶의 子 공민왕 때 執義 典校令에 이르렀다. 1392년 朝鮮開國후 고려의 충신들이 귀양 갈 때 江原道에 유배되어 江原道에서 孫興宗 金輅等에 의하여 杖殺되었다.⁴⁸⁾

禹 洪 命

本貫은 丹陽, 丹陽伯 禹玄寶의 아들이다. 1383년 우왕 9년에 文科에 壯元及第하여 공양왕 때 吏曹佐郎 禮曹佐郎을 역임했다. 1392년 李成桂가 등극하고 조선이 開國되자 고려 왕실파로 몰려 전라도에 유배되었다. 이때 같이 流配된 형 禹洪壽 禹洪得과 함께 3형제가 李崇仁등과 함께 鄭道傳의 사주를 받은 黃居正에 의하여 杖殺되었다.⁴⁹⁾

金 震 陽

字는 子靜 號는 草屋子 草廬 本貫은 慶州다. 鵝林의 士族이다. 어려서 孤兒가 되었다. 공부에 힘써 19세에 進士科에 합격하고 1371년 공민왕 20년에 謁聖文科에 及第하고 會試에는 높은 성적으로 뽑혔다. 이어 官界에 나아가 藝文春秋館檢閱이 되고 十年이 채 못되어 清官職을 거쳐 西海道按廉使가 되어 치적을 남기고 門下舍人을 거쳐 左司議大夫에 이르렀다. 공양왕 時 癸卯의 獄이 일어나매 震陽이 同僚에게 말하기를 癸卯의 일은 세살난 어린아이라도 또한 그 誣忘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여, 李成桂派의 憲司가 공을 탄핵하며 大逆을 경솔히 의논하여 正論을 저지하니 청컨대 官職을 삭제하고 먼 地方으로 流配하고 叙用치 말라고 주장했으나, 왕은 다만 그 職만을 파면했다가 右敬騎常侍로 기용했다. 이어 左常騎常侍에 올랐다. 김진양은 李穡 鄭夢周의 門人으로 李崇仁 경몽주등과 손잡고 고려를 찬탈할려던 음모를 진행시키던 李成桂派를 제거하려고 右常侍 李擴 右司議 李來 左敏納 李敦 右獻納 權弘 正言 柳沂등과 더불어 三司左使 趙浚 前 政堂文學 鄭道傳 前密直副使 南閭 前判書 尹紹宗 前判事 南在 淸州牧使 趙璞等を 탄핵했다. 그의 논지는 「정도전은 미천한 신분에서 몸을 일으켜 堂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천한 근본을 감추고자 本主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홀로 일을 하기 어려우므로 讒言으로 죄를 얻어 만들어 많은 사람을 連坐시켰으며 趙浚은 한두 사람의 卿相 사이에서 우연히 원수와 틈을 일으켜 道傳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變亂을 선동하고 권세를 회용하여 여러 사람을 꺾고 협박하니 이에 官爵을 잃을까 걱정하며 勢를 쫓아 부침하는 무리와 그 뜻에 영합하여 일을 일으킬려는 무리들이 호응하여 일어났으니 그 중에 南閭 南在등은 變亂을 선동하는 羽翼이 되고 尹紹宗 趙璞등은 造言하

47)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卷 1, 元年壬申條.

48) 上揭書.

49) 上揭書.

는 喉舌이 되어 唱和하고 일어나 罪綱을 널리 펼쳐서 刑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쓰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求하니⁵⁰⁾ 여러 사람의 마음이 위구하며 모두 원망하고 嗟嘆하고 있으므로 첫째는 天地生物의 和氣를 상하게 하고 둘째는 殿下의 好生의 德을 손상시켰읍니다. 庚午年에 淸州의 洪水와 辛未年에 城市에서 배를 타게 되는 天災가 거듭하여 이르고 곡식이 등품하지 못함이 어찌 그 불은 바가 아니겠읍니까. 전하께서 만약 말씀하시기를 浚은 공신이므로 비록 죄가 있어도 마땅히 용서할 것이라 하신다면 신들은 또 가만히 듣건데 지난해 무진년에 開國伯이 전하를 세우려는 마음이 이미 回軍하는 날에 생겼는데 浚은 군중에 있지 않았으니 그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기사년에 開國伯이 전하를 세울 계획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浚은 이를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말하였으나 개국백이 허락치 않았기 때문에 전하가 즉위할 수 있었읍니다. 이를 가지고 논한다면 浚은 전에는 처음 의논하는 날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후에는 이미 결정된 계획을 저지시키고자 하였으니 이를 전하의 공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하겠읍니까. 浚이 만약에 말하기를 나는 일찌기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하면 다만 左右의 여러 재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높지마는 낮은데의 것을 들음이라 昭然하여 가히 두렵습니다. 어찌 능히 속이겠읍니까. 지극할지어다. 開國伯의 충성이여 僞朝가 중화를 치려는 지조를 막아서 이 백성 살리기를 저와 같이 하였고 조준이 다른 이를 세우려 하는 계획을 거부하고 전하를 세웠음이 이와 같으니 그 충성의 지극함은 가히 日月을 깨꿨다고 하겠읍니다. 저번에 만약 萬里에 行軍하여 上國에 挑戰하였더라면 이 백성의 衣食이 이에 壽域 가운데서 安樂함을 어찌 얻었으리까 하물며 天子가 특히 사신을 보내어 內帑의 珍寶를 내려주시고 世子를 寵遇하여 제후의 위에 序次함을 또한 가히 얻을 수 있었겠읍니까. 浚과 같은 자는 그 말이 저와 같으니 그 마음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功臣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크게 불충한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요행으로 견세 있는 연줄을 타서 도리어 공신의 이름을 얻어 공신의 반열에 참가하여 얼굴을 그려 빛나게 전한 것이 큰 공신과 다름 없으며 품계를 뛰어 관직을 받은 것이 진짜 공신 보다는 십배나 되니 영화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일찌기 遷善하여 죄를 가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물매 羽翼이 되고 喉舌이 되는 무리들과 함께 無時로 모여서 모의하니 어찌 쓸데없이 그러하겠읍니까. 臣등은 그윽히 두려워하건데 반드시 그 도모함을 이룩하지 못하면 또 不忠한 의논이 있을 것이니 일찌기 이를 치치하여 그 세력이 성하지 못하게 함만 같지 못합니다. 또 臣등이 듣건데 浚이 殿下의 앞에서는 울고 슬퍼하는 시늉을 하여 길으로는 착한 사람이 된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속으로는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계획이오니 이

50) 刑罰할 수 없는 처지에 형벌하고 본래 罪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고 말한것은, 형벌할 수 없는 이에게 형벌한다는것은 至尊하신 禍王 昌王 父子를 臣下로서 處刑한것을 말함이요 본래 罪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는 것은 李穡등 高麗王室에 忠誠하던 諸大夫들을 의미한다. 申欽도 그의 著 象村雜錄에서 그와 같이 말했다.

것은 거짓 뉘우침입니다. 전하는 天性이 正直하사 事實로 여기시나 신은 그것을 몹시 한탄합니다. 浚이 姦計를 한창 부릴 처음에 하늘이 그 마음을 인도하여 드디어 昨非를 깨닫고 뉘우침이 이 같으면 그 뉘우침은 참된 것이겠지만 그가 지금에 와서는 그 악한 짓을 같이하고 난리를 부르는 무리가 거의 기세가 꺾이었으나 여러 사람의 노여움과 시기함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이 하지 않고 그 죄를 면할 수 있겠읍니까. 이는 실로 부득이 하여 그러함이니 거짓 뉘우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만약 훗날에 다행이 다시 기회를 타서 세력을 얻으면 그들이 번고를 일으킴이 전보다 심함은 필연적이오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믿지 마시고 일찌기 도모함이 가할것입니다. 또 신들이 듣건데 閹이 일찌기 아뢰기를 전하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仁義를 배운다 하였으니 이 말이 웬말입니까. 또한 閹은 국가에 별로 특수한 功도 없이 갑자기 臺府에 올랐으니 전하의 下賜함이 컸는데도 이에 浚과 道傳의 뜻에 영합하여 일찌기 은혜에 감동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없고 감히 경멸하고 모욕하는 不敬한 말을 내어 上意를 격동케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합니다. 그 用意하고 간악함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가히 두려웁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그 죄가 오직 같은데 전하께서 만약 고식적으로 결단하지 않으신다면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원망할 뿐만아니라 도리키지 못할 후회가 있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신들은 본시 고의로 남을 해치고 자 하는 자가 아니옵니다. 어찌 감히 저들이 私私 원수를 갚지 못하여 마음을 괴롭히고 근심하는 것을 본받으려 하겠읍니까. 다만 公義가 이와 같고 사세가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가식 같으면 皇天 上帝가 실로 먼저 신들을 베일것이니 가히 두려워하지 않겠읍니까. 업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浚 閹在 紹宗들의 직첩과 공신의 록권을 회수하고 그 죄를 국문하여 형벌을 밝게 다스리고 道傳은 이에 貶所에서 처형하여 後來를 경계함을 내리옵소서」라고 했다. 이 과격한 上疏가 올라감에 공양왕은 심약하여 宮中에 두고 保留하여 내리지 않았다. 김진양의 상소는 비록 李成桂를 높였으나 그 실상은 장차 이를 숙청할려 함이었다. 김진양 등이 憲司에 이첩하여 吏卒을 풀어 조준과 남은의 집을 지키게 하니 조준은 독서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사직을 위할 뿐이다 또 무엇을 근심하겠는가고 태연했다. 이것은 이성계의 세력을 믿기 때문이다. 이튿날 김진양등은 伏閣하여 다시 청하므로 공양왕이 門下侍中 沈德符 정몽주를 불러 의논하여 드디어 조준은 먼 지방으로 유배하고 남은 윤소종 남재 조박은 삭탈관직하고 또한 먼 지방에 유배하였다. 정도전은 유배중에 있었으나 知申事 李詹이 있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震陽등이 아뢰는데 依據하여 사람을 奉化로 보내어 정도전을 잡아서 甬州에 가두었다. 司憲府 大司憲 姜淮伯, 執義 鄭熙, 掌令 金猷 徐甄, 持平 李作 李申이 또 上疏하여 조준등에 죄줄것을 주장하고 아울러 탄핵하여 判典校寺事 吳思忠의 죄가 윤소종과 같으니 함께 문초하여 다스리기를 바란대했다. 이에 삭탈관직하고 멀리 유배했다. 김진양등이 또 말하길 옛사람

이 말하기를 풀을 베고 뿌리를 除去하지 않으면 필경에는 다시 나고 악을 제거하고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이 자라난다고 했다. 浚과 道傳은 악의 뿌리요 남은 윤소중 남재 조박은 그 뿌리를 길터 뺏어가게 하는 자입니다. 前日에 臣들이 글을 올려 伏誅할 것을 청하였으나 오직 정도전은 특히 윤려를 받았으며 나머지 사람은 다만 外方으로 편출되었으니 죄는 같은데 벌은 다릅니다. 청컨대 조준등을 모두 극형에 처하소서 라했다. 공양왕은 이 과격한 상소에 크게 놀라 나는 처음에 정도전을 베라고 한 바가 없었다고 하고는 정도전은 光州에 조준은 泥山에 옮겨 유배하고 남은 남재 조박 윤소중 오사충은 모두 水原에 모아 巡衛府 千戶 金龜聯 刑曹正郎 李蟠과 楊廣道觀察使 姜隱을 보내어 함께 국문토록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李成桂가 위독한 증세를 무릅쓰고 肩輿를 타고 밤새워 집에 돌아 왔기 때문이다. 정몽주 이색 우현보등은 주장하기를 만약 조준과 남은을 탄핵하여 極刑에 처하면 조박 윤소중 오사충의 무리는 즉히 제재할 것이 없다하고 비밀히 臺諫을 꺾어 여러날 번갈아 伏閣 상소하여 延諍하여 조준 정도전을 죽일것을 청하니 王이 命하여 남은등 諸人을 국문하여 그 供辭가 조준과 정도전에게 관련이 있는 뒤에 가히 아울러 이를 국문케 하였다. 李芳遠이 지휘하는 반격대가 정몽주를 살해하여 정세는 일변 되었다. 李芳遠이 李和(이성계의 아우)와 의논하여 李芳果를 시켜 공양왕을 협박했다. 만약 정몽주의 당을 국문치 않는다면 臣등을 죄주기를 원한다고 함에 공양왕은 부득이 대간을 순군옥에 내리고 外地에 유배하고 반드시 국문은 말것을 명했다. 그러나 이성계과의 兩府가 대렬에 나아가 국문하기를 주장하니 왕은 할 수 없이 判三司事 裒克廉 門下評理 金湊에 命하여 巡軍提調 金士衡등과 함께 治罪케 했다. 臺諫이 말하길 門下府의 移牒에 의거하여 했지 그들의 本意는 아니다하고 김진양은 정몽주 이색 우현보가 이충인 이종학 조호를 시켜 臣등에 判門下 李成桂가 功을 믿고 오로지 擅斷하는데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의 羽翼인 조준등을 제거한 뒤에야 가히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자백했다. 이에 李崇仁 趙瑚 李種學과 그 아우 李種善 鄭夢周의 아우 禮曹判書 鄭遇司 宰令 鄭蹈 및 그黨 鄭寓 李堂을 국문하니 모두 자백했다. 이에 趙浚을 소환하고 吳思忠 南在 趙瑛을 복직시키고 鄭道傳 南閔 尹紹宗은 赦宥되었다. 정세는 急轉 直下하여 고려 왕실파인 金震陽 李擴 李來 李敢 權弘 鄭熙 金畝 徐甄 李作 李申 李崇仁 趙瑚 李種學 李鍾善 鄭遇 鄭蹈 鄭寓 李堂 등이 먼곳에 流配가게 되었다. 律文을 詳考한 法官이 金震陽등의 罪는 斬刑에 해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李成桂가 殺生을 좋아하지 않고 또 김진양등은 鄭夢周의 使喚를 받았을 뿐이라고 이성계가 사형을 면해주었다. 그리고 곤장도 李成桂의 관용으로 면해주었다. 禹玄寶의 손자 禹成範과 姜淮伯의 아우 姜淮季는 공양왕의 사랑하는 사위다. 우현보의 黨과 강희백은 連坐되지 않았고 柳沂은 病으로 殞刑되었다. 李詹과 代言 李士穎은 外地에 流配되었다. 李成桂의 麾下柳

晏殊 尹虎 黃希碩등이 上書하여 鄭夢周의 집을 籍沒하고 그 黨을 아울러 엄중히 다스리기를 요청했다. 공양왕은 무력한지라 이에 좇아 金震陽 李擴 李崇仁 趙瑚 李種學 李種善의 告身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에 만족치 않고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는 李成桂 父子의 臺諫들이 서로 글을 번갈아 올려 金震陽의 무리가 혼란을 만들고 일을 일으켜 화란을 이룬것은 그 모의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黨이 한 사람이 아닌데도 또 因循하고 고식적으로 放置하고 묻지 않는다면 못사람의 불만이 클것이므로 變故의 發生과 간사의 일어남이 장차 그치지 않을 까 두렵다고 하면서 巡軍萬戶府에서 그들을 조사 처벌하여 화란을 근절하도록 하라고 옥박질렀다. 이에 공양왕은 다시 국문치 말고 다만 前日의 獄辭에 의거하여 그 輕重을 가려서 아뢰게했다. 이에 의하여 金震陽은 杖 100을 쳐 遠地 流配에 처하니 杖毒으로 이내 죽었다. 고려를 불들고 이성계 혁명을 저지하려던 忠臣 金震陽은 고려의 제단에 그의 고귀한 피를 바쳤다. 그는 知貢舉 牧隱에 의하여 取選된 牧隱의 門人이었고 李崇仁과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고결한 人格과 慷慨한 성품을 갖고 清廉潔白 하여 초가집에 살았다. 李崇仁은 草屋子傳을 지어 그의 高邁한 人格과 生涯를 그렸다.⁵¹⁾

李 擴

공민왕 때 右司議大夫 右散騎常侍를 역임했다. 1392년 공양왕 4년 金震陽 등과 손잡고 李成桂의 찬탈을 저지하려고 위선 이성계의 낙마 중상을 기회로 그의 羽翼爪牙인 趙浚 鄭道傳 南閔등을 탄핵하여 숙청하려다 전광석화 같은 이성계와의 반격으로 流配되어 李崇仁등과 함께 杖殺되었다.⁵²⁾

李 種 學

字는 仲文 호는 麟齋 本貫은 韓山 李穡의 아들, 1374년 공민왕 23년 14세에 成均試에 합격하고 1375년 우왕 2년에 文科及第 官이 簽書密直司事에 올라 昌王元年 同知貢舉를 겸했다. 공양왕 즉위하자 李成桂派에 의하여 昌王 翁壼으로 인하여 탄핵받아 父子 파직되었고 彝初의 獄에 연루되어 父子 함께 淸州獄에 갇혔다가 水災로 인하여 석방되어 咸昌에 유배되었다.

고려가 망하자 鄭道傳 南閔이 孫興宗을 보내어 雞林에 이르러 등을 杖으로 쳐 죽일려 하다 門生 金汝牧가 判官이 되어 와서 몰래 刑吏에 戒하여 法外刑을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하여 근근히 살았더니, 다시 長沙縣에 移置함에 孫興宗이 사람을 보내어 茂村驛에 쫓아가서 밤에 목졸라 죽였다. 때에 나이 32세였다.⁵³⁾

51) 『高麗史』卷 世家, 恭讓王條, 『高麗史』卷第 117, 列傳卷第 30, 金震錫傳,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燃藜室記述』 『新增東國輿地勝覽』 『家村集』 『陶隱集』.

52)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卷 1, 太祖元年 壬申條.

53) 上揭書.

邊 安 烈

본시 瀋陽人이었으나 원나라 달기에 심양에 가있던 공민왕을 따라 恭愍王時에 瀋陽에서 와서 紅巾賊과 倭敵의 토벌에 偉功을 세워 官이 推忠亮節宣威翊贊輔祚功臣號에 禮儀判書 門下評理 門下贊成事 判三司事 領三司事 原州府院君에 이르렀다. 雲峰大捷에는 李成桂의 副將으로 공훈을 세웠다. 1389(창왕원년) 大護軍 金佇등이 李成桂를 除去하고 禡王의 復位를 도모한 사건에 연루되어 禹玄寶 李穡 李琳과 같이 流配되어 있다가 斬殺된 忠臣이다.⁵⁴⁾

李 琳

本貫 固城, 判開城府事로 딸이 禡王의 妃가 되어 鐵城府院君에 封해졌다. 1389년 昌王 元年 李成桂派의 田制改革에 反對하고 門下侍中으로 金佇의 獄事에 연루되었으나 昌王의 外祖父라 하여 極刑을 免하고 鐵原에 유배되었다. 葬初의 獄事가 일어나자 李成桂派의 모함으로 忠州에 유배되어 죽었다.⁵⁵⁾

金 佇

門下侍中 崔瑩의 생질이다. 최영 생전에 최영의 心腹으로 활약했다. 官이 大護軍에 이르렀다. 1389년 창왕원년 최영의 族黨인 副令 鄭得厚와 함께 驪興에 流配된 禡王을 만났더니 禡王이 寶劍을 주면서 국왕이 신임하는 將軍 郭忠輔에 진하여 힘을 합하여 李成桂를 죽이라는 밀명을 받았다. 이에 郭忠輔와 비밀히 모의하여 八關會 날에 거사하기로 계획했으나 배신자 郭忠輔가 이성계에 밀고함으로 써 실패하여 巡軍獄에 가두고 문초하여 무서운 酷刑을 단행했다.⁵⁶⁾

·崔 乙 義

공양왕시 知司憲府事 密直使를 除授받았다. 1392년 공양왕 4년 경몽주가 살해된 후 경상도에 유배되었다가 1392년 조선 開國시에 고려 王室派라하여 李崇仁 李種學등과 함께 杖殺되었다.⁵⁷⁾

李 申

字는 申之 號는 溪隱 本貫은 載寧이다. 茅隱 李午의 兄이다. 공양왕시에 司憲府持

54) 『高麗史』 卷 126, 列傳卷第 39, 姦臣 2, 邊安烈傳, 『高麗史節要』, 『高麗史』 世家 恭讓王 世家, 大隱實紀.

55) 『高麗史』 世家, 恭讓條, 『高麗史節要』.

56) 上揭書.

57)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太祖元年 條.

平이었다. 高麗王室을 扶持하려고 金震陽 鄭夢周 李崇仁和 함께 高麗를 篡奪하려는 李成桂派의 羽翼爪牙의 무리인 鄭道傳 趙浚 南閔등을 李成桂의 落馬危篤時에 彈劾 申請했다가 李成桂의 反擊으로 인하여 도리어 고려의 王室派인 鄭夢周는 打倒되고 李穡 李崇仁 金震陽등과 함께 肅清되어 朝鮮革命을 반대하다가 流配 途中에 杖毒으로 죽었다. 公은 出天의 孝子로 朝廷으로 부터 旌閭되었으니 이를 孝子洞이라 한다. 지금의 경남 밀양군 상남면 소음리가 거기다. 公은 密州 五賢의 首班에 꼽으며 圃隱 鄭夢周의 門人으로 學行이 一世에 뛰어났었다.⁵⁸⁾

杜門洞諸賢

朝鮮開國元年에 섬기던 고려 王朝가 亡하자 고려에 忠誠하는 臣下들은 朝鮮에 臣事하기를 거부하고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고 守節하다 죽은, 周粟을 먹지 않았던 伯夷 叔齊의 節義를 본떠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면서 조선 왕조가 여러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던, 一群의 忠節臣들이 있었다. 그들은 朝鮮王朝의 하늘아래서 守節했으며 그중에는 더러 수절타가 이제는 이상의 守節이 人民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新王朝의 興성하는 政治에 기여코자 간곡한 조선왕조의 부름을 받고 나아간 守節臣도 있었다. 이 분들은 本稿의 續研究인 朝鮮王朝初期節義派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本研究에서는 除外했다.

本稿에서는 고려의 멸망과 함께 殉節한 忠臣을 中心으로 다루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Ⅳ. 結 言

이상에서 朝鮮 革命之際에 조선 혁명이 進行되는 過程을 고찰하였다. 그 조선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려 왕실을 빈사의 상터로 몰아가서는 드디어 멸망시키는 李成桂派의 用意周到한 물설 틈없는 혁명의 계획과 단행을 살피왔고 廢假立眞을 들고 나와서 정통 고려의 王室을 타도하고 공양왕이란 폐퇴 왕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피비린내나는 무자비한 肅清을 살렸고 그 革命을 主導한 李成桂派의 人物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기우는 고려의 王室을 扶持 回天하려는 용감한 고려의 忠臣들과 고려최후의 守節之臣을 정리했다.

여기서 結論에서 강조하고 싶은 點은 朝鮮 革命의 推進 人物들과 거기 對抗한 一群의 고려 王室派 人物들의 評價를 내고자하는 데 있다. 五百年 老衰王朝는 紀綱의 문란과 庶政의 부패는 極에達했고 國敎인 佛敎 또한 부패하여 寺院은 龐大한 田莊을 소유한 莫强한 莊園經濟를 소유하여 막대한 奴婢를 가지고 있었고 僧侶의 數와 寺院의

58) 上揭書, 『嶺南人物考』.

濫設 또한 危險 水位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舊家世族의 權貴는 莫大한 莊園을 소유하고 막강한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農民이 主를 占하는 人民의 生活은 塗炭이요 桎梏이었다. 이 때 新進 儒學者를 中心한 性理學者들은 對外的으로 親明 對內的으로 崇儒의 旗幟를 높이 올리고 改革政治에 光焰을 吐했고 그 情勢는 드디어 新王朝의 開國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氣運은 大陸에서 元 明의 交替에 影響됨이 많았다. 이에 北方女眞族의 强阜한 騎馬 軍團의 親兵(私兵)조직에 바 한 救國의 英雄 新進 武將 李成桂 장군이 革舊改新의 君王으로 추대되었다. 李成桂派는 一次的으로 親元派 正統貴族세력을 타도하여 英雄 崔瑩을 타도 함으로서 최영으로 대포되는 舊權門勢力을 타도했다. 다음 第2 단계로 같은 性理學者요 親明派이던 鄭夢周 李崇仁 등의 一群의 不事二君 大義名分을 주장하는 王室派를 타도하여 혁명을 成功시켰다.

革命派는 時代의 潮流에 副應한 愛國 愛民의 良心的인 참신한 政治세력이요 儒敎의 王道主義를 실현시킬려는 儒敎 政治세력이었다. 이에 對항하여 고려를 回天코자한 고려의 王室세력 忠臣들은 忠君愛民의 사상과 節義에 殉한 千古의 忠臣들로서 그 節義와 志操는 千秋에 빛나고 있으며 이 정신은 이후 五百年 朝鮮 王朝의 綱常을 유지하는 原動力이었고 國亂에 勤王舉義의 兵을 일으켜 祖國을 保衛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이 點에서 이들의 사상과 지조는 길이 顯彰되어 마땅하다. 이로써 이 두 兩大 세력의 政治系譜가 정리되었다고 보겠다.